現代國語의 文體法에 대한 硏究*

——敍法體系(續)——

高　永　根

1. 머 리 말

본고는 形式을 중심으로 試圖했던 現代國語의 終結語尾 곧 結語法에 대한 分析(高永根 1974a)을 바탕으로 그것에 包括되어 있는 한 범주인 文體法의 用法을 具體的으로 把握하여 그 體系定立을 試圖함에 重要目的이 있다. 또 이 작업을 통하여 現代國語의 敍法體系의 다른 한 面貌[1]를 窺知함으로써 敍法體系 全般을 總括해 보려고도 한다.

본고는 現代前期國語의 結語法體系의 究明에 重點을 두고 있으므로 資料取擇의 범위는 1930年代를 넘어서지 않음을 原則으로 한다(高永根 1974a). 引用된 자료의 略號는 모두 前日의 方法(高永根 1965, 1974a)을 따르기로 한다. 사전의 用例나 필자의 例는 특별히 밝히지 않았고, 앞의 두 拙稿의 자료 目錄에 없는 것은 작자와 作品名만 表示하였다.

文體法의 用法記述에 앞서 明白히 해둘 것이 있다. 文體法은 대체로 話者와 聽者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바(後述), 양자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狀況으로 區分할 수 있다.

(1) 話者가 실제의 對話에서 聽者와 共同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狀況
(2) 話者가 聽者를 직접 意識하지 않고 獨白(혼잣말)하는 狀況
(3) 演士가 公式席上에서 聽衆을 向하여 이야기하는 狀況
(4) 當局이나 企業主가 大衆이나 顧客에게 媒體를 통하여 公開的으로 알리는(告示) 狀況
(5) 文章에서 筆者가 讀者를 상대로 자기의 思想을 表現하는 狀況

(1)은 聽者가 반드시 對話에 參與하므로 話者와의 社會的 關係에 따라 結語法의 한 범주인 尊卑法이 表示된다. 이리하여 이를 **相關的 場面**이라 부르기로 한다. (5)는 말듣는이를 직접 意識함이 없이 讀者가 읽어줄 것이라고 前提하고 있으므로 (1)과 같이 話者(筆者)와의 사이에 一定한 關係가 맺어질 수도 없고 따라서 尊卑의 等分도 나타날수 없다. 이를 앞의 相關的 場面에 대해 **單獨的 場面**이라 부른다. 그러나 (2) (3) (4)는 單純하지 않다.

* 본고는 高永根(1974a)의 續編이다. 필자는 이를 高永根(1974b)와 함께 1972年 여름에 脫稿한 바 있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아 발표를 미루어 왔었다. 그동안 본고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論文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어 부분적인 修正내지 補添이 불가피하였다. 순서상 본고가 高永根(1974b)보다 먼저 발표되었어야 할 것이나 如意치 못하여 뒤바뀌었다. 이점 독자 여러분의 諒解를 구한다. 본고의 內容들은 제29회 문법연구회(1974.10.4)와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會(1975.6.9)에서 부분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

[1] 필자는 10年前 現代國語의 敍法體系를 構築하는 第一段階로서 說明·疑問·感嘆의 세 文體法의 先語末語尾의 文法的 意義를 究明한 일이 있었다(高永根 1965).

(2) 는 話者單獨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1) (5)의 어느것과도 一致하지 않는다. 自問自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1)과도 같을 수 있으나 一定한 社會的 關係가 成立할 수 없다는 점으로는 (5)와도 비슷해 보인다. (3)은 聽衆을 向하여 一方的으로 이야기할때는 (5)와 비슷하고 質疑應答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1)과 비슷한 面도 없지 않다. (4)는 媒體(後述)를 통하기는 하지만 大衆을 직접 意識하고 있으므로 (5)보다는 (3)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다.

(1)은 尊卑法의 領域이고 (5)는 文體論의 所管이다. 尊卑法은 聽者와의 相互關係에서 決定되므로 話者(筆者)에게 等分選擇의 權限이 賦與되어 있지 않으나 後者의 경우는 選擇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2] (2)는 聽者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選擇問題가 論議될 수 없다. (3)은 聽衆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質疑할 때, 等分選擇은 話者에게 달려 있으나 (5)와는 달리 相互對話가 가능하다. (4)역시 等分選擇權은 話者에게 있다. 媒體를 통하기 때문에 (3)과 같은 對話의 가능성은 없다. (2) (3) (4)는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대체로 狀況 자체가 公開的이요 尊卑의 등분 선택에 대한 權限이 話者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크게는 單獨的 場面의 테두리에 넣을 수 있다(高永根 1974b : §4.1). 이리하여 필자는 廣義의 話者와 聽者와의 關係를 다섯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相關的 場面과 單獨的 場面으로 묶어 보았다.[3] 이러한 態度는 文體法의 記述뿐만 아니라 尊卑法의 記述(高永根 1974b)에서도 妥當性이 立證된다.

文體法의 用法 把握에서도 文體法의 分析에서와 같이 두 部類로 나누어 작업하기로 한다. 說明法·疑問法·感嘆法은 文體法(1), 命令法·許諾法·共同法·約束法·警戒法은 文體法(2)라 부르기로 한다(高永根 1974a : Ⅰ).

2. 文體法(1)의 用法

2.1. 說明法

說明法은 尊卑法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異形態가 있으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다}로써 전체를 代表하기로 한다(高永根 1974a : §2.1.7).

2.1.1 相關的 場面에 나타나는 說明法 {-다}는 모든 尊卑法에 걸쳐 어떠한 敍法形態素와 統合되더라도 사실(thing)에 대한 認識內容을 陳述(say)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陳述도 청자에게 단순히 陳述하는 것과 質問에 대한 陳述로 구분될 수 있다.

(1) 볕이 드니 차일 쳐라 그렇지 아니하면 더워 못 견딘다(國分 : 139)
(2) 무슨 질병이나 있나 하고 너를 불렀더니라(지장보살 7 : 131)

(1)은 청자에 대한 一方的 陳述인데 대해 (2)는 提示된 用例만으로는 부족하지만 質問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說明法에는 각 尊卑法에 걸쳐 다른 文體法과의 合成形이 體系的으로 나타난다(高永根 1974a : §2.1.6). 대부분의 경우, 合成形은 "-다고 하다"등의 縮約形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

---

[2] 尊卑法을 포함한 廣義의 敬語法(discourse levels and honorification)이 stylistics의 所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張奭鎭(1973 : 69, 138) 참조.

[3] 경렬모(1946 : 144)의 **홀로가름**과 **더불가름**, 배양서(1973 : 147)의 **어체**와 **문체**에 대한 설명은 필자에게 매우 有益하였다.

나 先行形式과 後行形式이 각각 直說法으로 成立되어 있을 때는 間接引用形으로 볼수 없는 일이 있다.

主體가 話者 자신일 때는 間接引用形과의 關聯이 불가능하므로 單一形과의 差異가 뚜렷하지 않다.

(3) 손님 오는걸 내가 보려고 앵두나무엘 올러갔다가 그랬단다(織女上 : 11)

이러한 일은 主體가 第三人稱일 때도 確認된다. 形式은 間接引用形의 縮約이지마는 用法面으로는 단순한 說明法으로 간주되는 合成形을 유사축약형이라 하여 單一形의 文體的 變異形으로 처리하는 態度는 비교적 온당해 보인다(南基心 1974 : 82—83).[4] 이러한 變異形은 後行形式의 尊卑法이 해라·하게·하오·합쇼體일때 局限하고, 해(요)·하지(요)體일 때는 確認되지 않는다. 해(요), 하지(요)體와 合成될때 主體가 話者 자신이면 非文이 되어버리고 第三人稱이면 引用의 用法만 把握된다.

*나도 가고 싶대
철수도 왔대(왔다고 해)
그사람도 갔다지(갔다고 하지)

說明法 가운데서 하게體는 特異한 用法을 보여준다.

(4) 아아니, 연애가 무슨 연애예요? 온 큰일 나겠네(織女上 : 404)
(5) 아이참, 나쁜 어른일세…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다 알어요(李瑞求. 어머니의 힘)

이들은 尊卑法도 문제되지만(高永根 1974b : §2.2.1), 感嘆的 用法이 重視된다. 聽者를 직접 意識하지 않고 예상밖의 일에 대해 화자 스스로 놀라와 하고 있다[5].

說明法 {-다}에 "-고"가 붙으면(高永根 1974a : §2.1. 圖表 참조) 前述한 合成形과 같이 間接引用形으로 解釋되지 않는 일이 있다.

지금 간다고(구) *cf.* 지금 간다.
참 좋다고(구) *cf.* 참 좋다.

이러한 形式을 절단된 유사축약형이라하여 文體論的 變異形으로 간주하려는 態度는 비교적 온당하다(南基心 1973 : 85—86). 그러나 {-다}에 비하여 詠嘆的이고 婉曲한 뉘앙스가 풍김을 否認할수 없다.

2.1.2. 說明法 {-다}는 相關的 場面뿐만 아니라 單獨的 場面에도 쓰인다.

(6) 응! 복받을 사람은 저러하것다(鬼의聲 : 185).
(7) 내 나이 벌써 열아홉살이렷다(능라도 5 : 93)

確認說明法이 獨白에 나타나는 일은 開化期資料에 빈번하다. 直說說明法 "-다"나 "-어, -지"등도 獨白의 說明法으로 쓰인다.

(8) (시계를 보며) 지금쯤 떠나겠다

---

[4]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이 究明할 필요가 있다(Dupont 1965 : 118).
[5] "네"의 用法上의 特殊性에 대해서는 Ooe (1958 : 15~20)와 成耆徹(1970 : 46) 참조.

(9) 정녕 지금쯤 무슨 일이났겠지(趙容萬. 신숙주와 그부인)

前 項에서 感嘆을 表示한다고 했던 "-네"등도 獨白에서 쓰일수 있다. 다음으로 公開文章의 경우를 살펴보자.

(10) 어린이가 잠을 잔다(방정환. 어린이 예찬)

해라體의 單獨的 場面에서의 用法은 現代文章에서는 直說說明法밖에 없으나 開化期資料에는 回想說明法 "-더라"등이 사용되기도 하였고[6] 지금도 "-(으)ㄹ 것이다"대신에 推測說明法 "-(으)리라"가 쓰이는 일이 간혹 있다.[7]

해라體의 直說說明法 "-다"는 用言이라는 사실을 不定的(infinitive)으로 表示하는 데도 쓰인다. 이는 縱으로는 다른 尊卑法과, 橫으로는 다른 文體法과 對立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高永根 1965 : §3.1.1).

가다 ; 희다 ; (책)이다. *cf.*가네, 가오, 갑니다… ; 가느냐, 가거라, 가자, 가는구나

說明法 {-다}의 單獨的 場面에서의 用法은 하게體 이상에서도 目擊된다. 이 경우도 {-다}가 直說法과 統合될 때 限定된다.

(11)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김소월. 산유화)

이러한 例는 詩, 특히 定型詩에서 支配的으로 나타난다.[8]

하오體도 單獨的 場面에 쓰인다. 草創期 文法書의 例文이 대부분 하오體이며, 開化期와 朝鮮總督府 時節의 朝鮮語 敎科書의 地文 중에 하오體가 많음에 依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들 例文은 받침있는 語幹 아래에는 通用的이라고 하는 "-으오"가 쓰임이 보통이다. 對話와 같은 相關的 場面에는 當面的이라고 하는 "-소"만이 쓰였던 것이다(高永根 1974a : §2.1.3). 하오體는, 드물지만, 詩에서도 쓰인다.

(12) 十三人의兒孩가道路를疾走하오(李箱. 烏瞰圖)

開化期에는 청중상대의 연사의 말이나 顧客상대의 廣告文에 하오體가 쓰이는 일이 있었다.

(13) 여러분은 꽃이 버러지를 爲하야 피는 것으로 생각하리다(朝鮮總督部. 朝鮮語讀本)

(14) 비싸지 아니하니 사 가시기 바라오(독립신문. 세계일보사 축쇄판. 1958).

합쇼體는 하오體보다는 더 보편적으로 地文 등의 單獨的 場面에 쓰인다.

(15) 전복과 물멍거지는…꿈틀꿈틀 합니다(아동 : 314)

(16) 귀뚜라미 귀뚜루루 가느단 소리, 달님도 추워서 파랗습니다(上同 : 272)

(15)는 定型性을 띤 詩의 用例이고 (16)은 해라體로 바꾸어도 좋은 地文의 用例다. 합쇼體가 地文으로 쓰이는 일은 兒童상대의 글에서 보편적이다. 國民學校 全學年 國語敎科書를

---

[6] 康允浩(1969)는 開化期當年의 敎科用圖書文章의 終結語尾를 고찰한 바 있으나 地文과 對話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兩者의 體系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7] Underwood는 文章體에만 특별히 사용되는 語尾를 book form이라 하고 있다(1915 : 439~440).

[8] Underwood는 尊卑意識과는 關係없이 詩歌類에 나타나는 하게體와 같은 一連의 語尾들을 poetic form이라 부르고 있다(1915 : 438).

檢討하여 보면,[9] 地文의 文體가 一學年 부터 三學年 까지는, 2—2의 一個 單元만 除外하고는, 합쇼體로 一貫하고 있다. 四學年부터는 해라體가 간간이 導入되기 시작하여 六學年에서는 합쇼體를 능가하고 있다. 地文에 해라體와 합쇼體의 어느것을 使用해야 하는가는 글쓰는 이의 文體嗜好에 屬하는 것으로서 讀者의 社會的 地位와는 큰 關係가 없다. 國民學校 低學年 敎科書와 兒童文學作品에 합쇼體가 優勢한 것은 독자가 아직 공대적 表現을 배워야 하는 立場에 있음을 필자(작자)가 意識하고 있는 사실과 結付시킬 수 있다. 이 경우는 前述한 하오體와 같이 받침있는 語幹 아래서는 通用的인 "-읍니다"가 選擇되이 일반적이다(高永根 1974a : §2.1.4). 이는 朝鮮總督府 시절의 朝鮮語 교과서의 遺習이겠지만, 文學作品의 경우 最近에는 當面的인 "-습니다"로 統一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같다.

이상과 같은 합쇼體는 청중상대의 演士의 말이나 顧客상대의 廣告文에서 흔히 쓰인다.

(17) 지금부터 본인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18) 오늘은 목욕하지 않습니다

또 아나운서가 聽取者나 視聽者를 상대하는 放送에서도 쓰인다. 이때는 聽者를 직접 意識하고 있으므로 公開文章의 경우와 같이 해라體는 쓸수 없다.

(19) 오늘 뉴우스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밖에 "해요·하지요"體가 說明法으로 使用될때 詩나, 散文의 地文에서 單獨的 用法을 띠는 일이 없지 않으나, 이들은 대개 합쇼體와 混用된다. 하나 特記하고 싶은 것은 해體의 單獨的 用法이다. 이러한 일은 최근 新聞記事의 題號등에서 현저한데 한글 專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 外國書籍 값 크게 올라

公式席上의 경우는 說明法에 관한 한 합쇼體가 지배적이다. 開化期 當年에는 하오體가 꽤 보편적이었던 듯하나(用例 13참조), 近年에는 演士등이 자기의 意見을 陳述하건 原稿朗讀을 하건 합쇼體가 原則인 것같다. 이런 점으로는 顧客이나 聽取者 상대의 상황과 별로 차이가 없다. 어린이나 부녀자들 모임에서는 해요(하지요)體가 더 보편적이 아닌가 한다.

2.1.3. 說明法 {-다}는 相關的 場面에서나 單獨的 場面에서나 事實에 대한 認識內容을 상대방에게 陳述하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陳述에 그칠 따름이고 상대방에게 새로운 情報를 要求하거나 行動遂行을 要求하지 않는다.[10] 이러한 用法을 表示하는 形態素 {-다}에 대해 傳統的으로 "이름, 平述吐, 平叙文, 說明法, 叙述形, 平叙法"등으로 불러 왔다. "文, 形, 法"은 그 觀點이 統辭論的이냐, 形態論的이냐, 特定범주를 豫想하느냐에 따라 決定된다. 필자는 편의상 **說明法**을 採擇하기로 한다(이희승 1950). **法**을 接尾한 것은 結語法의 한 범주인 文體法의 하나라는 사실과 반드시 叙法形態素와 統合되어 叙法의 직능도 동시에 表示하기 때문이다(直說說明法, 回想說明法, 推測說明法, 原則說明法, 確認說明法).

形態素 {-다}에는 認識內容의 陳述 이외, 語調如何에 따라 感嘆의 用法도 나타나고 前述한 例文 (4) (5)와 같이 예상밖의 일에 대하여 놀라움을 表示하는 경우에도 쓰이며 특히

[9] 1963年度 문교부 편찬 「국어」에 依支하였다.

[10] 說明法에 대해서는 최현배(1961 : 829~831), 이홍배(1970, 1971), Gardiner(1963 : 189, 293~303), Jespersen (1965 : 302), Quirk, et al. (1972 : 385~387) 참조

推測確認法과 統合될 때는 강제성을 띤 命令의 用法을 띠기도 한다(高永根 1965 : 81~85). 그러나 이상의 用法은 다른 要素의 介入으로 確認되느니만큼 {-다}의 本質的 用法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한다. 說明法의 用法은 위의 {-다}이외에 非終結的 語尾 "-(으)ㅁ"과, "-고, -던데, -어서"와 "요"와의 統合形등(高永根 1974a : §4.3)에 의해서도 表示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은 해당 語尾의 用法을 파악하는 자리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2.2. 疑 問 法

疑問法도 說明法과 같이 尊卑法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일이 있으므로(高永根 1974a: §2.1.7) {-냐}로써 전체를 代表하기로 한다.

2.2.1. 相關的 場面에 나타나는 疑問法 {-냐}는 모든 尊卑法에 걸쳐 直說·回想·推測法을 先接함으로써 대체로 청자에게 判斷의 可否나 說明을 要求한다고 할 수 있다.

(1) 내 오빠 자리 펴 주리까?(織女上 : 261)
(2) 오늘은 며칠이냐(文世榮 : 101)

(1)은 推測法을 先接하여 判斷可否를 묻고 있으며 (2)는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필자의 疑問法 圖表에 依하면 해라·하게體에는 줄어진 形式이 體系的으로 나타났었다(高永根 1974a : §2.2). 해라體의 "-니, -디"는 줄지 않은 "-(느)냐, -더냐"와 비교할때 尊卑法의 價値는 勿論 文體法上의 기능도 다름이 없다. 形式上의 隨意變種일 따름이다. "-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굳이 差異點을 찾는다면 줄어진 形式이 본디의 것에 비하여 다소 親密하다고나 할까? 하게體의 "-나, -다"는 "-는가, -던가"와 비교해 볼때 尊卑法의 差異만 除外하면(高永根 1974b : §2.2.1) 文體法上의 差異는 찾기 힘들지 않은가 한다.

用例 (2)는 說明을 要求하는 疑問法이다. 필자는 疑問法을 分析하는 자리에서 **判定疑問**과 **說明疑問**으로 구분하여 작업을 한 일이 있었는데(高永根 1974a : §2.2.1, §2.2.2)[11]이 현상은 中世國語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었다(李承旭 1963; 安秉禧 1965). 그러나 現代國語에서도 開化期자료에는 相關的 場面에서 說明疑問法의 形式이 간간이 보인다. 종전에는 이러한 形式을 語感과 관련시켜 왔었는데[12], 다음 用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疑問詞와 呼應하고 있으므로 說明疑問으로 처리함이 좋을 듯하다.

(3) 자네는 두엇을 가지고 저사람의 과실이 없다 하노(驅魔劒 2 : 123)
(4) 그러면 선친장의 함자가 무슨 자이든고(訪花隨柳亭 10 : 450)

說明疑問과 함께 特殊疑問法에 所屬되는 選擇疑問이 있다[13]. 이는 說明疑問法과 같이 독자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判定疑問法의 反覆으로 成立된다.

---

11 判定疑問과 說明疑問에 대해 Jespersen은 nexus question, x-question으로 (1965 : 302), Gardiner는 question for corroboration, question for specification (1963 : 304)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wh-question이라 하는 일도 있다(Quirk, et al. 1972 : 387).

12 "-는고, -느뇨"등을 "-는가, -느냐"등에 대하여 "깊은 의문"이라하고 있다(정인승, 1960 : 307; 「큰사전」의 해당표제어 참조).

13 選擇疑問은 yes or no로 답하는 것이 아니므로 一般疑問이 아닌 特殊疑問이라고 한다(大塚高信 1959 참조). Jespersen 은 대답이 yes or no가 아니고 語調가 下降한다는 점에서는 x-question과 같으나 形式은 nexus-question과 같은 疑問에 대해 disjunctive or alternative라 부르고 있다. (1965 : 303).

(5) 너는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나니, 할아버지가 더 생각이 나니?(朴珍. 끝없는 사랑)
(6) 이애 한문으로 쓰랴, 언문으로 쓰랴(花의 血. 2 : 383)

다른 言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部分은 上昇調, 反覆部分은 下降調가 아닌가 한다(Jespersen 1965 : 303).

疑問法에는 前述한 判定疑問과, 說明疑問 및 選擇疑問 이외에도 聽者에 대해 어떠한 答辯도 要求하지 않는 **修辭疑問**이 있다. 形式은 疑問法이지마는 話者의 强力한 陳述 (forceful statement)로 解釋되는 疑問法을 말한다. 때로는 感嘆(exclamation)으로 解釋되는 일도 있다[14].

해라體의 推測疑問法 "-랴"는 대부분 反語的으로 쓰인다.

(7) 이게 허가만 나오면 너 금송아지 하나 못 사 주랴?(織女上 : 233)

"-랴"의 反語的 用法은 相關的 場面보다는 單獨的 場面에 더 보편적이다(後述). 위의 用例는 "사 줄수 있다"로 解釋되므로 反語法임이 틀림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랴"가 단순한 疑問法으로 쓰일 수도 있다. 앞서든 用例 (6)과 함께 다음은 聽者에게 質問하는 것이다.

(8) 그러면 오늘밤에 오랴(牧丹花 7 : 22)

그것은 이들이 "쓸까, 오겠느냐"등으로 바꿀수 있기 때문이다. 해라體에서는 "-랴" 이외에 "-겠-"을 先接한 "-느냐"등에 의해서도 反語法이 表示될 수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빼앗기겠느냐?

"-랴" 이외의 疑問法 語尾들도 反語的으로 나타날수 있다.

(9) 한탄한들 쓸데 있나?(交隣 : 280)
(10) 오! 태훈씨, 그러면 작히 좋을까요?(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타)

하게體 이상에서는 反語疑問法을 위한 特殊한 形式이 없이 推測疑問法 "-ㄹ까, -리까, -오리까" 등과 直說法의 "-겠-" 統合形에 依存하고 있다.[15] 用例(10)은 陳述이라기보다 感嘆的 疑問法에 가깝다. 강한 否定陳述(strong negative assertion)이 아니고 매우 肯定的(positive)이기 때문이다(Quirk, et al. 1972 : 401~402). 그런데 하오體에서는 推測法 "-리까" 이외에 "-리오"가 있어서 反語法으로 專用된다.

(11) 댁까지 그리 들리면 누를 믿고 장사하리오(國分 : 116)

이밖에 國語에는 一連의 特殊한 形式의 疑問法 語尾가 있다(高永根 1974a : §2.2.8). 이들

[14] Quirk, et al. (1972 : 400~402)에는 minor types of question에 exclamatory question과 rhetoric question을 두고 있다.

[15] 하게體 이상이라고 해서 反語疑問法이 다 가능하지 않다. 하지(요)體는 해(요)體와 달리 修辭疑問이 되지 못한다(張奭鎭 1973 : 128). 하지(요)體 이외의 尊卑法도 "꼭, 반드시"등의 modality bearing word나 "벌써, 아직"등의 polarity-sensitive word가 나타나면 修辭疑問이 되지 못한다(張奭鎭 1973 : 117).

도 修辭疑問의 테두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게

(12) 그년이 남의 첩노릇이나 하였으면 제법이게?(牧丹花 7:47)

위의 用例는 「큰사전」의 설명과 같이 "만일 그러하면 이리이리 되지 아니하겠느냐"의 意味로서 결과적으로 강력한 否定陳述(strong negative assertion)이 되어 버린다. 從屬節에는 條件의 語尾가 옴이 보통이다(~~~~ 참조). 위의 用例는 "그년은 첩노릇을 할수 없다"로 해석된다.

또 다른 意味를 띤 "-게"에 의한 修辭疑問이 있다.

(13) 부모상을 당하였다는 기별이 왔나? 편지를 보기도 전에 울기부터 하게?(눈물 10:109)

이 경우의 "-게"는 앞에서 完結된 陳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陳述을 하게 된 根據를 表示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앞에는 반드시 正常的 疑問法語尾가 온다(~~~~ 참조). 根據가 提示됨으로써 상대방의 지나친 行動을 中止시키거나 警戒하는 것이니 修辭疑問임에 틀림없다. 위의 用例는 "부모상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미리 부터 울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話者의 强力한 否定陳述을 確認할 수 있다.

(2) -다니(-라니)

(14) 무엇이요? 금년이를 데리고 오다니(牧丹花 7:30)

이 形式은 더 이상의 분석을 許容하지 않거니와(高永根 1974a:§2.2.7) 상대방이 陳述하는 內容을 話者가 듣고 疑心이 되거나 이상하게 느껴져서 되짚어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話者의 反問은 상대방의 陳述을 번복할 目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正常的 疑問法語尾가 前後에 따르는 것이다(~~~~ 참조). 위의 用例는 "무슨 일로 금년이를 데리고 왔느냐 그럴수 없다"와 같이 話者의 强力한 否定陳述을 包含하고 있으므로 修辭疑問의 테두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3) 口系 語尾

필자는 "-남, -담, -ㄴ감"의 세 形式의 共通要素로 "ㅁ"을 抽出한바 있다(高永根 1974a: §2.2.8), "ㅁ"을 "말이야"와도 關聯시킬 수 있으나 "뭐"와 더 가깝지 않은가 한다. 이 形式은 相關的 場面보다 單獨的 場面에서 더 현저하다.

(15) 내가 서방질하는 것을 제눈으로 적실히 보았남
(16) 입속에 든 떡은 빼앗길지언정 품속에 든 처녀를 내어놓았담?(牧丹峰 2:204)
(17) 미쳤거나 술이 취하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짓이더람(三代:67)
(18) 세빠아도 새낀감(새끼인감)?(朴珍. 끝없는 사랑)

위의 口系의 語尾에 共通되는 意味는 話者가 상대방의 言行에 대하여 가볍게 핀잔을 주는 것이다. 用例 (15)는 "자기가 서방질하는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으면 그런 言行을 해서는 안된다"는 화자의 强力한 陳述을 內包하고 있다.

一般的 疑問法語尾들은 判定과 說明·選擇·修辭의 機能 이의 命令·禁止·勸誘 등을 指示하는 일이 있다.[16]

(19) 저년의 아가리를 닫히지 못하게 하느냐(자고가는 조선 : 13339)
(20) 여보, 영감 글쎄 그 작난을 웨 허슈?(川邊 : 80)
(21) 자아, 우리두 그만 일어 슬까(上同 : 135)

(19)는 "닫히게 해라"로서 命令을, (20)은 "허지마우"로서 禁止를 각각 表示한다. 특히 後者는 다음에 "제발 좀 삼가세요"가 계속되므로 그러한 用法이 더욱 뒷받침된다. (21)은 상대방에게 같이 行動할 것을 提議하고 있다. 이 경우 共同法語尾 "-자, -세"등과 자유로이 置換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으)ㄹ까(요)"의 用法上의 特殊性을 確認할 수 있다. 疑問法의 이상과 같은 用法은, 命令法의 경우와 같이, 動詞에 局限되며 直說法과 推測法에만 나타나고 回想法에는 볼 수 없다. 形容詞에도 觀點如何에 따라서는 命令의 用法이 파악될수 있다.

(22) 당신도 가는 것이 어떻겠음니까?(당신도 가십세다)(최현배 1961 : 839)

이때에는 動詞 "가다"와 관련시킴이 옳을 것이다.

이상은 單一形의 用法이지만, 說明法과 마찬가지로, 疑問法에도 다른 文體法과의 合成形이 各 尊卑法에 걸쳐 體系的으로 나타난다(高永根 1974a : §2.2.6). 說明法과는 달리 모든 合成形은 "-다고 하느냐"등의 縮約形과 用法이 같아 보인다.

2.2.2. 單獨的 場面에서의 疑問法의 樣相을 살펴 보기로 한다.

說明法에서는 獨白보다는 地文의 文體가 多樣했었는데(§2.1.2), 疑問法에서는 오히려 獨白에서 뚜렷한 面이 있다.

(23) 지하철 어디까지 왔나?(新聞記事의 題號)
(24) 만 이태! 그동안에 변하니 변하니 해도 그렇게 변하였을까(三代 : 117)
(25) 그때에 봉구는 얼마나 미안해하고 슬퍼하였던가?(李光洙. 再生)

이상은 公開된 文章 곧 地文의 用例인데 相關的 場面과 같이 反語疑問法(-랴, -리오)은 勿論 하게體의 直說法(23)과 推測法(24)이 대부분이고 回想法도 눈에 띈다(25). 說明法에서는 直說法이 原則이었는데 疑問法에서는 그 범위가 擴大되고 있다. 疑問의 종류에 있어서는 反語疑問, 判定·說明疑問, 感嘆疑問(24, 25)이 있어서 相關的 場面과 사정이 비슷하다. 選擇疑問도 가능하다.

(26) 韓國問題 擧論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獨白의 경우도 地文과 大同小異하다. 特異한 점은 說明疑問法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27) 내가 이 모양이 될줄은 누가 알았을꼬(雉岳 1 : 331)
(28) 아버지께선 왜 이렇게 늦으시누(三代 : 173)

---

[16] 이러한 用法은 일찌기 우리의 傳統文法家들에게 주목된 바 있다(김윤경 1957 : 206 ; 최현배 1961 : 837~839).

이점 開化期(27)와 30年代(28)는 큰 차이가 없다. 相關的 場面에 관한 限 이 形式은 開化期에만 약간 나타났었다(§2.1.2).

위의 單獨的 場面에 나타나는 하게體의 直說法·推測法·回想法은 文中에서 話者의 主觀的 想念을 表示하는 데도 쓰인다.

(29) 솥에 더운물이 있는가 얼어 보아라(國分 : 143)
(30) 당신과 나와는 우정을 넘어서 예술이란 향기로운 동산에서 맺어야 할 운명이었던가 보오(金元福. 나의 그리운 親友여)
(31) 내가 팔리어 가고 아버지를 나오시게 할까 보오(洗劍亭 10 : 496)
(32) 조선에 있으면 할일이 많고 미국가면 볼일이 적은즉 갈까 말까 하오(Underwood. 鮮英文法)

(29)는 疑心을[17], (30)은 推測을, (31)은 意向을, (32)는 망설임을 각각 意味한다. 이는 물론 後行하는 補助的 動詞와의 統合에 依해 결과되는 것이다. 특히 (29)는 疑心의 連結語尾 "-는지"로 代置할수 있다는 점에서 用法上의 正當性이 뒷받침된다.

公式席上에서 質問할때는 앞의 說明法에서와 같이 합쇼體가 原則이고 狀況의 性格에 따라 하오體도 쓰일수 있으며 어린이 모임에서는 해요體가 빈번한 것같다.

2.2.3. 疑問法 {-냐}는 場面의 如何에 不拘하고 判定疑問과 說明·選擇疑問은 勿論, 修辭的 用法과 話者의 主觀的 觀念을 表示하는 데까지도 쓰이고 있다. 修辭疑問은 疑問法의 形式을 取하고 있지만 사실은 陳述(assertion)과 感嘆(exclamation)의 效果를 위한 것이며 主觀的 想念은 後行形式과의 統合上의 制約에 依해 結果되는 것이다. {-냐}의 가장 中心되는 用法은 첫째것으로서 話者가 聽者에게 새로운 情報(information)를 提供해 주기를 要請(demand)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8] 이러한 用法을 띤 {-냐}에 대해 傳統的으로는 "물음, 疑問吐, 疑問形(文), 疑問法" 등으로 불러 왔다. 文·形·法 등은 說明法과 같이, 觀點에 따라 決定된다. 필자는 **疑問法**을 쓰기로 한다(이희승 1950). **法**의 接尾根據는 說明法의 경우와 같다(§2.1.3). 結語法의 한 범주인 文體法의 하나라는 것과 敍法形態素와 統合되어 敍法의 기능도 同時에 表示하기 때문이다(直說疑問法, 回想疑問法, 推測疑問法).

疑問法의 形式 가운데는 常套的으로 쓰이는 것이 있다. "안녕하십니까"의 "-ㅂ니까"는, 形式은 疑問法이지만, 단순한 상투적 表現에 不過하다.[19] 이는 間接引用法(後述)으로의 置換이 불가능하다.

* 안녕하시냐고 묻다

疑問法의 用法은 {-냐}이외에도 非終結的 語尾 "-(으)면서, -는지, -(으)ㄹ는지, -(으)ㄹ지, -기"와 "요"와의 統合形(高永根 1974a : §4.3)에 의해서도 表示되는 일이 있다. 또 間

[17] Ooe (1958)는 "—는가"의 줄어진 形式 "—나"의 sememe을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태를 의심스럽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記述하고 있으나 이는 一面的 내지 例外的 用法일 뿐이다(p. 22-24). 그의 indicative 體系의 最大缺點은 中心的 用法을 輕視하고 例外的 用法에 力點을 둔 것이다. 그러나 用法의 部分的 파악에 있어 청자의 意識與否를 고려할 것은 長處로 간주된다.

[18] 疑問法의 用法에 대해서는 최현배(1961 : 837~839), 이홍배 (1970, 1971), Gardiner(1963 : 189, 303~310), Jespersen (1965 : 302~305), Quirk, et al. (1972 : 387~402) 참조.

[19] 상투적 표현에 대하여는 Quirk, et al. (1972 : 411~414) 참조.

接引用法에 依해서 反問法 (echo question)이 形成되기도 한다. 전자는 해당 形態素의 用法을 파악하는 자리에서 言及됨이 좋을 것이고 후자는 間接引用法을 論議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取扱될 것이다(後述).

2.3. 感嘆法

感嘆法도 前述한 두 文體法과 같이 尊卑法에 따라 그 形式이 다소 다르긴 하나, 이는 이른바 "-구-"系列이고(高永根 1974a : §2.3.3) 그밖에 用法이 特異한 複合的 形成이 많다. "-구-"系列만 {-구나}로 代表하고 나머지 形式은 獨自的으로 처리한다.

2.3.1. 相關的 場面의 用例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1) "-구-"系列의 感嘆法

(1) 참말 세월도 빠르다. 네가 벌써 거상을 벗는구나(織女上 : 128)
(2) 농담이 아닐세, 이 짤은 해에 마음편한 소리하고 있구만(林圭 : 417)
(3) 그 아이가 글쎄 거기서 놀더구나

(1)(2)는 直說法에 의해, (3)은 回想法에 의해 새삼스런 느낌으로 화자 자신의 意見을 상대방에게 陳述하고 있다. 感嘆을 同伴한 陳述임이 說明法과의 差異點이다. 用例 (1)을 取하여 보면 상대방이 화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거상을 벗게 되었음에 새삼 놀라와 하고 있다. 이때 "벗는구나" 대신 "벗는다"로써는 그러한 用法이 파악되지 않으며, 前後文脈으로 볼때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 더 자세한 것은 다른 系列의 感嘆法과의 비교에 의해 明白해질 것이다(後述).

이상은 본디말의 形式이지만 필자의 圖表에 依支하면(高永根 1974a : §2.3.1), 해라體에는 줄어진 形式이 있다. "-군, -더군"은 "구나, -더구나"와 비교해 볼때 尊卑法上의 문제만 안고 있을뿐(高永根 1974b : §2.1.1), 文體法上의 차이는 있는 것같지 않다.

(4) 응! 마침 잘 만났군(廉尙燮. 두 破產) *cf.*(1) (2)
(5) 아무도 없드군(三代 : 249) *cf.*(3)

(2) -(으)ㄴ걸 (껄) (高永根 1974a : §2.3.2)

「큰사전」에 의하면 "-는걸, -던걸"은 어떤 일에 대하여 화자 스스로의 생각이 이러이러하다고 感嘆하는 意味를 表示한다고 한다.

(6) 흠, 이건 쇠뿔리 감기만 들겠는걸(三代 : 139)
(7) 아까 내게 하시던 것을 보아도 선심이 대단하시던걸(빈상설 2 : 58)

앞의 {-구나}와 비교하면 이 語尾의 意味가 더 明確해진다. "-구-"系列은 상대방의 처지나 행동(1,2) 또는 第三者의 그것(3)에 대하여 화자의 새삼스런 느낌이나 認識을 陳述하는 것이었으나, "-(으)ㄴ걸"은 화자 자신의 처지나 행동을 감탄적으로 陳述한다. 이러한 用法을 代表的으로 表示하는 것이 用例(6)이다. 用例 (7)은 {-구나}와 用法이 크게 다른 것같지 않다. "-(으)ㄴ걸"의 用法上의 特徵은 이의 異形態로 간주되는 推測法"ㄹ"과의 統合形인 "-껄"(高永根 1974a : §2.3.2)에서 한층 더 뚜렷이 浮刻된다.

(8) 참 좋구나 썩 잘 보인다. 벌써 올라올껄

「큰사전」의 설명과 같이 이미 한 일에 대하여 달리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嘆息하는 것이다. 이러한 用法은 推測法 "ㄹ"과의 統合에 연유하는지도 모른다. 推測法과 본 形式이 統合된 "-(으)ㄹ껄"은 確實하지 못한 未來의 일을 單純히 推測하는 데도 쓰인다.

(9) 그는 지금 집에서 공부할껄

이때는 主體가 第三人稱이다.

(3) -(으)ㄴ데(高永根 1974a : §2.3.2)

直說法과 回想法을 先接하는 "-(으)ㄴ데"는 화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스스로 感嘆하는 意味를 表示하고 있다.

(10) 글쎄 퍽 잔데요(李春日 : 84)
(11) 말 눈치가 그렇지 않은가 보던데요(三代 : 92)

「큰사전」에는 "-(으)ㄴ걸"과 "-(으)ㄴ데"의 用法이 이상과 같이 다른 것으로 記述하고 있지만 양자를 同一視하여 상호교체의 가능성까지도 示唆하는 일이 있다(Vandesande 1968b : 97, 377~378). 필자로서는 「큰사전」과 같이 구별함이 좋을 듯하다. "-(으)ㄴ걸"의 代表的 用例인 (6)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으)ㄴ걸"은 화자자신에 관한 일을 영탄적으로 陳述하는데 대해 "-(으)ㄴ데"는 화자 자신 감탄하면서 상대방의 意見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用例 (10)은 맛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자기로서는 짜지만 상대방은 어떨지 생각하느냐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4) -거든(高永根 1974a : §2.3.2)

이 語尾는 화자가 文章을 감탄적으로 강조하면서 끝맺을 때 쓰인다.

(12) 창칼이 아모리 든들 큰 것은 못 버히거든(交隣 : 164)
(13) 허허 참 별일도 많거든(눈물 10 : 126)

객관적으로 認定된 사실을 화자 자신 감탄함에 그칠 따름이고 상대방에게 同意를 요청하지는 않는다.

(5) -거니(高永根 1974a : §2.3.2)

이 語尾는 統合品詞에 制約을 받는 점 등 이의에는 "-거든"과 큰 差異가 없다. "-거니"는 形容詞와 先語末語尾 "-었-"과만 統合되기 때문이다.

(14) 회는 가늘게 쳐야 먹기 좋거니(交隣 : 252)
(15)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은 섭섭한 말 한마디를 하자고 왔거니(琵琶聲 3 : 429)

"-거니"는 開化期 資料에 주로 보임에 대해, 앞의 "-거든"은 現在도 쓰이고 있다. 원래는 양자가 相補的으로 쓰였던 것이나 現在에 와서는 "-거든"만으로 動詞, 形容詞에 두루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거든"이 形容詞에도 붙음(13)을 보아서이다.

(6) -(으)ㄹ꺼나(高永根 1974a : §2.3.1)

해라體로 看做되는 "-(으)ㄹ꺼나"는 "느끼거나 망설임"으로써 感嘆法과 疑問法에 두루 쓰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20], 感嘆法을 第一次的인 것으로 보고, 疑問法은 例外的으로 처리함이 온당할 듯하다. 口語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詩的 文體에 간혹 보인다.

(16) 모든 문화 그 근본을 밝히러 갈꺼나(「한글의 노래」一節)

이상의 몇 系列의 語尾이외에 感嘆的인 助詞에 의해 感嘆法이 表示되는 일이 있다(高永根 1974a : §4.1 ; §4.2).

"그래"는 感嘆法 語尾에만 統合된다(高永根 1974a : §2.3.1 ; §4.1). 二重의 機能에 緣由하는지는 몰라도 그 統合은 필수적이 아니며 따라서 그 用例도 흔하지 않다.

(17) 그럼 규모는 있는 사람이군그래(華想 : 299)
(18) 아따 만리타국에 나떠나가는 것 같군그래(李瑞求. 어머니의 힘)
(19) 히…그렇게 되면 만사가 다 피일텐데그려(朴珍. 끝없는 사랑)

"그려"는 "그래"와는 달리 하게體 이상의 說明·疑問·命令·共同法에 두루 붙는다(高永根1974a : §4.2). 이때는 話者가 "그려"를 선택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感嘆의 用法有無가 決定된다. 이리하여 "그려"가 붙은 文體法은 說明感嘆法, 疑問感嘆法, 命令感嘆法, 共同感嘆法이라 할 만하다.[21] "그려"와의 統合에서 留意할 것은 單獨的 場面에도 나타나는 說明·疑問法 "-네, -나, -ㅂ니다"등(§2.1.2 ; §2.2.2)이 "그려"와 統合되면 언제나 相關的 用法만 띤다는 것이다. 곧 "그려"는 單獨的 場面에는 나타나지 못한다. 이점은 "요"와의 統合에서도 同一하게 말할 수 있다(高永根 1974a : §3.1).

感嘆法에도 前述한 두 文體法과 같이 合成形이 存在한다(高永根 1974a : §2.3.4). 대부분의 合成形은 "-다고 하는구나"등의 縮約形과 同一하여 보인다. 그런데 필자의 感嘆法圖表(高永根 1974a : §2.3)에 들지 않은 것으로서 "-다나"를 들수 있다. 이를 "-다고 하는구나"의 縮約形으로 볼 수 있는지는 確言하기 어려우나 有關한 것으로 看做한다.

(20) 먼저 다니든 선생이 여선생허구 연애를 허다가 둘이다 쫓겨 났다나(織女下 : 272)
(21) 주민의 대부분이 쫓겨가는 적군과 함께 남하했다나(洪性裕. 悲劇은 없다)

用例 (20)은 單獨的場面에 쓰인 것이다. "-다나"는 話者가 남에게서 들은 말을 무관심한 태도로 별로 確信性도 없이 말할 때 쓰인다. 그러나 화자는 속으로 主體의 그러한 行爲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意味를 함축하고 있다. (21)을 例로 든다면 주민들이 쫓겨가는 적군과 함께 남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다나"에 대하여 間接的 感嘆의 意味(sens indirect exclamatif)를 賦與한 일이 있음(Dupont 1965 : 71)은 필자의 처리에 대한 한 밑받침이 될수 있다.

2.3.2. 單獨的 場面에 나타나는 感嘆法 語尾의 典型的인 것은 "-구나, -어라"이다.

(1) 구나

(22) 아, 이세상 모든 여자가 나를 속이는구나(幻戲 : 457)

---

[20] 鄭寅承 박사는 두가지를 認定하기도 하고(1956 : 100, 101), 한가지(疑問)만 認定하기도 한다(1960 : 309).

[21] 洪起文(1947 : 360)에는 "자네나그려"와 같이 說明法에 感嘆詞를 붙이면 說明感嘆, "자게나그려"와 같이 命令法에 感嘆詞를 붙이면 命令感嘆이 된다는 설명이 보인다.

(23) 흐음, 이것이 장안의 명물 매당이군(三代 : 42)

"-구나"의 單獨的 用法은 地文보다 獨白에서 우세한 편인데 直說法에만 確認되고 回想法에서는 볼수 없다. 「큰사전」에는 하게體의 "-구면"에도 獨白의 用法이 있다고 하나 필자의 資料取擇範圍에서는 아직 찾을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單獨的 場面에 나타나는 "-구나"는 文章가운데의 이른바 **혼잣말인용동사**(南基心 1971 : 225) 앞에서 話者의 느낌을 間接的으로 表示할 때도 쓰인다.

(24) 어쨌든 이러한 데에 드나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三代 : 138)

(2) **-어라**

이 語尾는 圖表作成의 편의상 해라體에 넣은 것이지(高永根 1974a : §2.3 圖表 및 §2.3.1)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언제든지 청자를 意識하지 않는 獨白에서 나타나므로 尊卑法을 想定할 수 없다. "-어라"는 주로 形容詞와 統合되고(25, 26), 경우에 따라 이른바 指定詞에 쓰이는 일도 있다(27).

(25) 에그 무서워라, 사람이 죽겠네(牧丹峰 2 : 185)
(26) 아이고 캄캄해라(杜鵑聲 5 : 367)
(27) 인생은 고생이어라(큰사전)

感嘆法 "-어라"는 "놀라움, 슬픔" 등 감정표시의 感嘆詞와 呼應하고 있다(~~~~ 참조). 이렇게 보면 다른 感嘆法 語尾와는 달리 매우 主情的이라 할 만하다. 이 語尾는 과거시제의 先語末語尾 "-었-"과 統合되는 일이 있다. 이때의 "-었-을 "-어 있-"의 縮約形으로 보면 形容詞的인 用法의 一面을 띠고 있는 "있다"의 感嘆法으로 解釋할 수 있다. "없다"(28)와 함께 대개 詩的인 文體에 나타난다.

(28) 石澗에 우는 물방울 설움 그득 찼어라(현대시조의 一節)
(29) 박연을 이르고 보니 하나밖에 없어라(李秉岐. 박연폭포)

2.3.3. 微細한 차이를 드러내는 各 語尾들의 用法을 큰사전의 定義에 依支하여 그 상호관계를 究明하여 보았으나 未洽하기 짝이 없다. 위의 몇 系列의 語尾들은 대체로 화자가 感嘆내지 詠嘆하는 것이라고 要略할 수 있다. 이러한 用法을 表示하는 形態素{-구나} 등에 대해서 독자적인 文體法으로 설정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 이가운데서 否定論을 편 최현배의 所見을 보기로 한다.

그는 처음에는 感嘆法을 인정했었으나(1934 : 38), 그 뒤에는 베풂꼴에 所屬시키고 있다(1937 : 313~315). 그는 三個項目에 걸쳐 感嘆法의 獨自的 文體法으로서의 成立可否를 論斷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최현배의 見解는 再考되어야 한다.

첫째, 베풂꼴도 느낌을 表示한다고 하는데(1961 : 255), 疑問法도 感嘆의 意味를 表示하는 일이 많다(§2.2.1). 說明法의 感嘆的意味는 語調나 感嘆詞의 同伴등으로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2.1.3), 本質的인 것은 아니다. 원래 感嘆의 意味란 話者의 主觀에 依支하는 것으로, 前述한 바도 있듯이(§2.3.1), 命令法·共同法 등도 "그려"와 統合됨으로써 感嘆의 用法이 表示된다.

둘째, 느낌꼴도 남에 대해 말할수 있다고 하는데(1961 : 255), 그것은 사실이다. 感嘆法이란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요 화자의 主觀的 感動을 表示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 初期文法家들이 感嘆法을 **홀로맺**(김두봉 1916 : 124)이라고 한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화자가 상대방을 어느정도 意識하게 되면 感嘆과 함께 說明(陳述, 베풂)도 同伴하게 되므로 尊卑의 등분이 다소 가능해진다(前述). 물론 感嘆法 가운데는 청자를 豫想하지 않는 獨白의 形式도 있다(§2.3.2), 感嘆法의 說明的用法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說明法의 感嘆的 用法이 임시적임과 같다(§2.1.3).

세째, 느낌꼴과 베풂꼴이 제홀로 말할 적에 쓰인다고 하는데(1961 : 255~256), 感嘆法의 獨白的 用法은 本質的인 것이요 說明法의 獨白的 用法은 派生的인 것이다. 또 느낌꼴의 形式이 不備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필자의 圖表에 依하면 적어도 해라·하게·하오體까지는 固有한 形式을 갖추고 있으며 "그려"와의 統合形式이나 特殊形式까지 고려하면(高永根 1974a : §2.3), 어느정도 그 形式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다. 필자는 다른 觀點에서 感嘆法의 體系定立을 論議하려고 하나(後述), 최현배의 感嘆法 否定論은 根據가 박약하다고 할수밖에 없다. 필자의 管見으로는 최현배가 말하고 있는 "베풂꼴은 예사의 생각과 느낌의 생각에 통용되지마는 느낌꼴은 느낌을 나타냄에만 쓰히는…"이란 表現自體가 벌써 感嘆法을 是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느낌베풂월** 또는 **느낌월**을 設定하고 있는 것(1961 : 833)은 긍정적인 一面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수 있다.

필자는 形態素 {-구나}등에 대해, 形式의 갖추어짐과 이의 獨自的 意味保有라는 두가지 要件을 기초로 하여, **感嘆法**이라 부르고자 한다. **法**의 接尾는 文體法의 하나라는 것과 敍法形態素와 統合되면 敍法의 직능도 同時에 表示됨을 意味하는 것이다[22](直說感嘆法, 回想感嘆法, 推測感嘆法).

3. 文體法(2)의 用法

3.1. 命令法·許諾法

形態素의 分析過程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高永根 1974a : §3.2), 命令法과 許諾法은 意味上의 차이는 어느 정도 발견되지마는 구조상의 차이는 찾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그것은 두 文體法이 間接引用助詞 "고"앞에서 "-(으)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兩者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命令法은 {-어라}로, 許諾法은 {-려무나}로 代表하고 統合할 때는 {-라}로써 包括하기로 한다.

3.1.1. 文體法 (1)의 用法把握에서와 같이 單獨的 場面의 사정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로 {-어라}의 用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손이 더러우니 목욕이나 감아라(國分 : 50)
(2) 배우는대로 날마다 가르쳐 다오(海岸 4 : 299)
(3) 더 놀다가 가게그려(速修 : 89)
(4) 지팽이 부러지겠으니 치지 마오(國分 : 149)

---

[22] 感嘆法의 用法에 대해서는 최현배(1961 : 833~834), Gardiner(1963 : 189, 315~325), Jespersen (1965 : 301~302), Quirk, et al. (1972 : 401) 참조.

(5) 만닙 그러하시지 말고 션네 말씀을 들읍시오(雉岳 : 48)

위의 用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形態素 {-어라}는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行動해 줄것을 要求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라}는 動詞와만 統合됨이 原則이다. 形容詞 가운데서도 接尾辭 "-하다"가 붙는 것은 {-어라}를 取할수 있다.

(6) 어서 몸만 튼튼해라(朴珍. 끝없는 사랑)

이때는 形容詞가 動詞로 轉成했다고 할 수 있다. "조용하다, 부지런하다" 등도 같은 例이다.

{-어라}는 單純한 命令만을 表示하지 않는다. 尊卑法에 따라 그 意味가 조금씩 다르다(張奭鎭 1973 : 101). 해라體 등의 낮춤의 등분에서는 直接的인 命令이나 指示의 意味가 파악되고(1.2), 하게體 이상에서는 勸告나 提議로 해석됨(3~5)이 보통이다. 그것은 등급이 높아질수록 상대방을 직접 命令하거나 指示하기가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시킬 수 있다. 보통 祈禱文·書簡文 등의 文語體에 쓰이기는 하나 하소서體에는 勸告·提議를 넘어서서 嘆願에 가까운 意味가 賦與된다.

(7) 주님께서 도와 줍시사(李光洙. 再生)
(8) 시각을 머무르지 마옵시고 대매로 때려 주옵소서(彈琴臺 5 : 252)

하소서體를 除外하고는 尊卑法에 따른 意味의 差異란 절대적이 아니다. 하오·합쇼體 등도 語調가 강해지면 직접적인 命令의 意味를 띨 수도 있고, 해라體 등도 語調如何에 따라서는 勸告나 所願의 意味가 파악된다. 특히 "제발, 부디, 좀, 어서"등을 同伴하게 되면 尊卑法의 如何에 不拘하고 권고나 所願의 意味만 띤다(張奭鎭 1973 : 101).

命令法의 否定形은 "말다"에 의해 成立한다(이홍배 1971). 이는 後述할 許諾法은 勿論, 廣義의 命令法에 所屬되는 共同法에도 適用되는바, 餘他의 文體法에는 "않다"로 實現된다. 앞에서 提示한 用例(4)를 例로 든다.

(9) 치지 마오(命令法), 치지 말려무나(許諾法), 치지 맙시다(共同法)
(10) 치지 않는다(說明法), 치지 않느냐(疑問法), 치지 않는구나(感嘆法)

例示의 편의를 위해 尊卑法을 섞기는 했으나 우리의 論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用例(9) (10)은 이른바 否定의 副詞形 "-지" 아래 쓰이는 점으로는 共通되나 (9)는 語尾가 廣義의 命令法이며 (10)은 非命令法이란 점으로는 다르다. 곧 語尾의 如何에 따라 "않-"과 "말-"이 구별·선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傳統文法에서는 命令文에 대해 "시킴(命令)이나 말림(禁止)의 뜻을 나타내는 월"로 記述하고 있다(최현배 1961 : 835). 그러나 이는 命令法의 否定形일 따름이다. 한편 "-지 않다"는 非命令法의 否定形인 것이다.

否定命令法에 特殊한 形式이 있는 것과 함께 特定한 動詞가 特定한 意味를 띠고 特定한 尊卑法에 나타나게 되면 그 活用이 불규칙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用例 (2)의"다오"인바 語幹과 語尾 共히 다르게 나타난다(高永根 1974a : §3.1.1). 이는 要請의 意味도 띠고 있는 "주다"가 해라體에서 "*주어라" 아닌 "다오"로 實現된 데 지나지 않는다. "말다"에 대해 禁止 云云의 意味설명이 필요 없듯이 "다오"내지 "달라"에 대해서 要請 云云이 필요

없지 않은가 한다(최현배 1961 : 836).[23] "말다"와는 달리 要請의 불규칙어간 "달-"은 命令法에서만 보이고 共同法에서는 나타나지는 않고 나타날수도 없다.

"-오"와 統合되는 해라體의 "-너라"는"-ㄴ"으로 단축되기도 한다(高永根1974a : §3.1.1).

(11) 그럼 너 수돌일 데리고 온(川邊 : 240)

"오너라"와 비교할때 尊卑法은 변함이 없다(高永根 1974b : §2.1.1). 文體法으로도 큰 차이는 없고 다소 친밀하고 다정한 느낌만이 파악될 뿐이다.

하오體의 命令法에는 "-(으)오, -소"의 두 系列이 있는바(高永根 1974a : §3.1.2), 尊卑法만 약간 문제될 뿐(高永根 1974b : §2.3.1), 文體法上으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다.

(12) 남의 집앞에서 코풀거나 춤밭거나 하면 실례가 되니 조심허소(國分 : 51)

"-(으)오"에 비하여 덜 格式的이고 친밀하지 않나 한다.

用例 (1)~(5)는 대부분 主體가 表面에 드러나 있지 않다. 命令法에서 行動에 대한 要求는 말받는 상대방에 관계되므로 行動의 主體는 省略됨이 보통이다. 그러나 用例(5)와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行動遂行을 강조할 때는 主體인 청자가 表面에 드러날수도 있다. 곧 對照를 보이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때 그러하다. 用例(5)가 후자의 用法에 合當하고 다음 用例가 전자의 用法에 해당한다.

(13) 인숙이는 마루를 닦고 인석이는 마당을 쓸어라

이상은 일반적 命令法語尾이지만 命令法에는 特殊할 用法을 띤 特殊한 形式이 存在한다.

圖表에는 提示하지 않았지만 해라體와 해體의 命令法에 "ㅅ"을 添加하면 呼令투의 命令法이 形成된다. 이는 學校나 軍隊에서 諸式訓練을 實施할때 쓰이는 "앞으로 갓, 뒤로 돌앗, 모두 섯, 차렷, 열중 쉬엇" 등에 나타나는 "ㅅ"이 그것이다. 이때의 "ㅅ"은 音聲的으로 內破音 [t']로서 呼令者의 態度如何에 따라 달라진다. 대개 文末에 액센트를 가할때 나타난다. 해라體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4) 얼른 벗고 나서랏(아동 : 311)

"서다, 앉다" 등의 動詞는 "-에 있다"와 統合되어 完了命令法을 形成한다.[24]

(15) 이년들 얻어터지려거든 거기 섰거라(빈상설 2 : 27)

(16) 예라, 이놈 물렀거라(織女上 : 25)

이들은 "아/어 있거라"로 代置될수 있으므로 短縮形으로 보아도 無妨할 것 같다. 그것은 하게體 이상에서는 "-아/어 있다(계시다)"의 形式에 依해 完了의 意味가 表示되기 때문이다.

앉아 있게, 앉아 계시오, 앉아 계십시오
서 있게, 서 계시오, 서 계십시오

形成節次야 어쨌든(形態論的이든 統辭論的이든) 國語에는 청자에게 急速한 行動의 完了

[23] 張斐鎭(1973)은 "달라—다오"를 "주다"와는 관련시킴이 없이 화자와 受惠者(recipient)가 同一할(coreferential)때 쓰인다고 記述하고 있다(p. 138 : n. 14).

[24] 洪起文(1947)은 "앉았거라" 등을 過去命令, "죽어라" 등을 現在命令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p. 360).

를 要求하는 完了命令法이 있음을 確認할수 있다.[25]

命令法의 形式 가운데는 間接引用法(後述) "-(으)라"에 "고"가 붙은 "-(으)라고(구)"가 있다(高永根 1974a : Ⅲ圖表 및 §3.1.1 참조). 이도 前述한 說明法과 같이(§2.1.1) 間接引用形 "-(으)라고 한다"의 절단축약형이 아닌 단순한 命令의 意味를 띨수도 있다(南基心 1973 : 86).

(17) 저 해지는 광경을 잘보라고(구)

說明法의 경우처럼 {-어라}에 비하여 婉曲한 뉘앙스가 파악된다.

{-어라}가 動詞 "보다"와 統合되면 假定的 條件을 意味할 때가 있다.

(18) 이 집안에서 나만 눈을 감아 보아라. 집안꼴이 무에 되나?(三代 : 26)

이 경우는 "본다면"으로 대치할 수 있다. 形式은 命令法이지만 意味上으로 보아 {-어라}의 本質的인 用法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用法은 주로 상대방을 脅迫 또는 訓戒할 때 나타나는 바 뒤에는 보통 修辭疑問法이 따른다(~~~~ 참조). 擬似命令法(pseudo-imperative)의 테두리에 넣을 수 있을 것같다(大塚高信 1959).

{-어라}에 이어 許諾法 {-려무나}의 用法을 검토함으로써 두 文體法의 相互關係를 살펴보기로 한다.

(19) 왜 이리 떠드느냐? 조용조용 말을 하려무나(彈琴臺 5 : 264)
(20) 뻐다구에 힘좀 맺히거든 다시 덤비렴(李孝石. 장미병들다)
(21) 의사를 보이고 약을 쓰려마(강소천. 배)
(22) 이것은 나 주려무나
(23) 아무데서나 할말 있거든 잠깐 하게나(빈상설 2 : 40)
(24) 자네부터 먼저 말을 하게나그려(趙一齊. 病者三人)
(25) 무슨 일로 이렇게 예쁜 꽃이 탄식을 그처럼 하오? 이야기나 해 보구려(아동 : 22)

{-려무나} 역시 앞의 {-어라}와 같이 動詞에 붙음이 원칙이나 "-하다" 統合의 形容詞에도 나타난다. 이때는 勿論 動詞로 轉成된 것이다.

(26) 좀 조용하려무나

{-어라}의 경우와 같이 尊卑法에 따라 그 意味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해라體에서는 직접적인 命令, 하게體 이상에서는 勸告의 意味를 認定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좀더 세밀히 觀察하면 用例(19)는 强制的이고 (20)은 협박적이며 (21)은 勸誘的인 一面이 있다. (22)(23)은 許容的이며 (22)는 要請的이다. 종래 {-려무나}에 대해 **許諾法**(이희승 1957 : 99)내지 **승락**(정인승 1960 : 310)의 意味를 賦與한 일은 包括的이 못됨을 알 수 있다.[26] 사실 許諾의 用法은 {-려무나}에서만 발견되지는 않는다. {-어라}에서도 語調如何에 따라서는 얼

[25] 英語에는 Have done!(=stop at once)과 같은 完了命令形이 드물게나마 存在한다고 한다(大塚高信 1959).

[26] 洪起文은 "-로구나, -구나"를 說明感嘆, "-려무나"를 命令感嘆이라 하고 있는데(1947 : 367~368), 이는 양자에 "나"가 共通되어 있음에 根據한 것이 아닌가한다.

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觀點에 서면 {-어라}와 {-려무나}는 意味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差異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許諾法의 體系가 命令法과 어느정도 對立되어 하오體까지는 形式이 整然하게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高永根 1974a : Ⅲ圖表). 이러한 形式上의 특징은 그나름대로의 독자적인 意味를 表示하고 있다. {-려무나}는 {-어라}에 비하여 덜 强制的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차이는 해라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用例(22)가, 보통의 命令法이라면 前述한 "다오"가 나타나야 할 터인데, "주려무나"가 存在하는 일은 이상과 같은 意味上의 차이에 根據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語調도 일반적으로 {-어라}만큼 硬化되는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命令法과 許諾法의 單一形 中心이었다. 許諾法은 合成形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高永根 1974a : §3.2). 命令法의 合成形(高永根 1974a : §3.1.4)은 모두 "-고 하여라"의 縮約形으로 解釋된다.

3.1.2. 單獨的 場面에서는 獨白의 경우는 드물고 公開的 狀況에서만 多樣하다.

(27) 저것 봐라 강물에 뛰어드는구나

이는 獨白의 用例인데 形式만 命令法이지 사실은 感嘆的이다.

命令法과 許諾法이 間接引用에서 "-(으)라"로 변한다 함은 別稿에서 昭詳히 언급한 바 있다(高永根 1974a : §3.1 ; §3.2). 間接引用에서의 "-(으)라"에 대해서는 文體法 體系를 구축하는 자리에서 언급하겠지만 바로 이 "-(으)라"가 單獨的 場面에 나타나는 것이다.

(28) 國民의 軍隊인 內外의 모든 國軍에게 永遠한 榮光 있으라(社說의 一節)
(29) 이기고 돌아오라 대한의 용사들(軍歌의 一節)
(30) 外國旅行 통제하라(신문기사의 題號)
(31) 日本人은 물러가라(데모대의 플래카드에 쓰여진 口號)
(32) 만천하 독자여 꼭 읽으시라(書籍廣告文)
(33) 단한번의 기회 꼭 보시라(映畵廣告文)
(34) 수험생들은 타종과 즉시 문제지만 갖고 나가라(답안지의 주의사항)
(35) 물음에 알맞은 답의 기호를 고르라(문제지의 지시문)

이상은 모두 公開的인 狀況에 씌어진 用例다. 社說(28), 新聞記事의 題號(30), 데모群衆의 口號(31), 廣告文(32, 33), 問答紙 등에서의 命令은 讀者·大衆·顧客·受驗生들을 상대로 告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狀況이 公開的이라 할 수 있다(Ⅰ章 참조). 노래 (29)도 마찬가지다. 公開的이라 함은 私談的인 경우와 對立하는 것으로서 特定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음을 意味한다.[27] 公開的인 경우는 대개 間接的인 媒體(紙類, 綿織類)에 依賴하는 수가 많다. 狀況이 公開的이므로 聽者(大衆·觀客등)는 모든 階層에 걸치고 있다. 따라서 特定한 尊卑法을 쓸수 없고 間接命令法 語尾 "-(으)라"를 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으)라"는 다른 文體法의 間接引用形과 같이 中和된 形式(南基心 1971 : 226), 곧 하라體(高永根 1974b : §4.1)이다. 바꾸어 말하면 尊卑法 形式의 中和는 尊卑意識의 中和까지도 招來하는 것이다.

---

[27] Dupont (1965)은 "-(으)라"의 用法의 一面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Sous forme d'invitation, lorsqu'on ne s'adresse pas à une personne en particulier (p. 72).

公開的인 命令法이 間接命令法 語尾에 依支한다는 사실은 用例(30)의 記事文에서 確認된다.

(36) 朴大統領은 3日오후 불필요한 외국여행을 통제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라고 내각에 특별지시했다

表現은 약간 다르지만 그 相關關係를 알 수 있다. 마지막 用例(35)는 "고르시오" 등으로 쓰기도 한다. 이는 "-(으)오"의 單獨的 用法과 관련된다. 그러나 "골라라, 써라, 답하여라" 등의 해라體의 使用은 옳지 못하다. 媒體가 問答紙요 그 狀況 또한 公開的이므로 間接命令法 語尾가 原則이다. 公開命令法의 主語는 第三人稱이다(~~~ 참조). 이는 前述한 相關的 場面의 命令法의 主語가 第二人稱내지 그와 類似한 表現이었던 것과는 對照的이다. 用例(32),(33)에서 尊敬의 先語末語尾 "-시-"가 나타난 것은 第三人稱인 主體를 공대하기 위한 것이다. 해라·하게體의 命令法에는 원칙적으로 "-시-"가 쓰일수 없다(최현배 1961 : 785). 그런데 間接命令法 語尾는 "-시-"를 取하고 있다. 이는 "-(으)라"가 해라體 등과는 아무 關係가 없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기대하고 계시라" 등도 같이 처리할수 있다.

開化期 자료에는 "-(으)라"가 單獨的 場面에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는 擬古體로 看做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中世國語의 命令法 語尾가 "-ᄋᆞ(으)라"였기 때문이다.

(37) 무슨 말이냐? 할말 있거든 하라(秋天明月 10 : 391)

그러나 분위기가 엄숙하고 殺伐할 때는 설사 相關的 場面이라 할지라도 "-(으)라"가 쓰일 수 있다.

(38) 왜적 청정아! 빨리 나와 내칼을 받으라

聽者가 面前에 있기는 하지만 분위기로 보아 話者와의 對話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으로는 그 狀況이 公開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問答이 許容될수 있다는 점으로는 相關的인 一面도 있다(後述). 이는 머리말에서 言及한 세째 경우와 비슷하다.

이밖에 하오體의 命令法에서 單獨的 場面의 用例를 발견할 수 있다. 會議席上에서 司會者가 一方的으로 聽衆의 意見을 물을 때는 하오體에 "-시-"가 挿入된 "-시오"가 많이 쓰인다.

(39) 자리를 옮기는 것을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 하시오(朴珍. 끝없는 사랑)

狀況이 公開的이며 청중의 처지가 被動的인 점에서 前述한 用例(38)과 비슷하다. 그러나 聽衆과의 問答이 許容될 수 있다는 점으로는 相關的 場面의 성격도 파악된다(後述). 步行者를 상대로 하는 交通信號의 한가지로 使用되고 있는 "서시오, 가시오"나 汽車鐵路邊에 서 있는 패말 "기차를 조심하시오"등의 表現도 媒體를 통한 公開的 告示이다. 前述한 문제지의 指示文이 "-시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34,35), 어느편을 쓰는가는 話者에게 매어 있다. "-(으)라"에 비하여 엄숙성을 띠었다고 할수 있는바 이는 하오體의 用法과 관련될 것이다(高永根 1974b : §2.3.2). 開化期에 나온 獨立新聞의 廣告文에는 전부 "-시오"로 나타난다.

(40) 귀한 서양물건을 사 가시오

現在는 前述한 "-(으)시라"(32,33)나 "-(으)세요"(여성상대)를 쓰거나 婉曲하게 表現을 하는데 開化期에는 "-(으)시오"와 같은 直接的 命令表現을 많이 쓴 것이다.

합쇼體도 單獨的 場面에 나타난다. 前述한 公開席上 등에서 發表者와 청중사이의 質疑應答의 경우에는 합쇼體가 보편적인 것같다(例.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모임에서는 司會者도 하오體보다 합쇼體를 많이 쓴다. 그러나 用例(39)와 같이 司會者가 君臨하는 位置에 있으면 하오體가 더 어울릴 것같다. 顧客상대의 廣告文에는 間接命令法이 쓰였으나(32, 33), 藥廣告文에는 합쇼體가 많이 보인다.

(41) 필콤으로 요층을 일망타진 하십시오

3.1.3. 命令法 {-라}는 相關的 場面에서나 單獨的 場面에서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行動(action) 遂行을 要求(demand)하는 것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疑問法은 새로운 情報를 要求하는 것이었는데 命令法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청자가 行動해 줄 것을 要求한다는 데 差異點이 있다.[28] 그리고 {-라}에는 다소 강제성을 띤 {-어라}와 덜 강제적인 {-려무나}의 두 系列로 나누어진다. 이런 用法을 띤 形態素 {라}에 대해 전통적으로 "시김, 命令吐, 命令形(文), 命令法(許諾法)" 등으로 불러왔다. "文, 形, 法" 등은 觀點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필자는 {-어라}에 대해서는 **命令法**이라 하고 {-려무나}에 대해서는 包括的이지는 않지만 **許諾法**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이 희승 1950). 兩者를 包括할 때는 前者로 부르기로 한다. **法**을 接尾한 것은 文體法의 하나라는 것과 그 자신이 敍法의 기능도 발휘함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形態素 {-라}는 行動遂行의 要求 이외 假想的 條件을 意味하는 일도 있었으나 統合關係가 극히 制限되어 있었다. 命令의 意味는 반드시 {-라}에만 依支하지는 않는다. 公開的 狀況에서 "-ㄹ것"(例. 4월말까지 자진 납부 할것), "-(으)ㅁ"(例. 차 세우지 못함)이나 推測確認法(§2.1.3)으로도 表示될 수 있으나 모두 해당 形態素의 用法을 파악하는 자리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3.2. 共同法

共同法은 앞의 命令法·許諾法과 함께 廣義의 命令法에 屬한다. 그러나 양자는 構造的 樣相이 현저히 다르다. 前者의 主語는 話者와 상대방의 合同인데 대하여 後者는 聽者單獨이다(최현배 1961 : 823). 또 後者의 間接引用法은 "-(으)라"인데 대해 "전자는 "-자"인 점도 重要한 差異點이다(高永根 1974a : §3.3).

3.2.1. 먼저 單獨的 場面의 用例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얘 그럼 그렇게 하자
(2) 우리 인젠 일어섭시다
(3) 나와 같이 술집에나 가십시다(鬼의 聲 1 : 247)

用例 (3)은 主體의 一員인 상대방을 높일 意向이 있을때 나타나는 것이다.

共同法은 前述한 命令法·許諾法과 같이(§3.1.1) 動詞에만 쓰임이 原則이나 接尾辭 {-하다}와 統合되는 形容詞는 {-자}를 取할수 있다.

(4) 자기 일에 충실하자

[28] 命令法에 대해서는 최현배(1961 : 835~827), 이홍배(1970, 1971), Gardiner(1963 : 189), Jespersen(1965 : 302), Quirk, et al.(1972 : 402~403) 참조.

共同法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같이 行動하기를 提案하는 것이 原則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特殊用法도 파악된다.

(5) 이애, 어서 들어 오너라. 이야기 좀 듣자(빈상설 2 : 23)
(6) 나도 한마디 부르자

위의 用例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기의 行動遂行을 提案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用例 (1)~(3)의 主語는 화자와 상대방의 合同인데 대해 위의 用例의 主語는 화자 자신일 뿐이다(최현배 1961 : 841). (6)의 用例가 이런 사실을 端的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보인다.

(7) 표 좀 빨리 팝시다

위의 用例는 상대방의 行動遂行을 要求하고 있지만 命令法과 비교해 보면 (*cf.* 표 좀 빨리 파시오) 提案의 意味가 뚜렷하다. 用例 (5),(6)과 用例 (7)에는 提案의 意味가 共通되어 있다. 그러나 前者는 話者의 行動遂行을, 後者는 상대방의 行動遂行을 提案한다는 차이점을 발견할수 있다. 이밖에도 {-자}에는 特殊한 用法의 一面이 있다(後述).

共同法에도 主語가 나타나지 않음이 보통이다. 그러나 行動遂行을 강조하고자 하면 用例 (2)와 같이 화자와 상대방의 合同인 "우리"가 顯在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과 화자로 완전히 分離될수도 있다.

(8) (봉환이)…나허구 같이 좀 가세(織女下 : 317)

화자가 "우리"에서 分離될때는 同伴格助詞 "허구"나 이와 유사한 意味의 副詞 "함께, 같이"를 同伴할수도 있다.[29]

共同法에도 命令法과 같이 用法上의 特殊性이 認定되는 特殊한 形式이 있다.

해라體의 共同法 "-자"에 "ㅅ"을 첨가하면 行動遂行을 催促하는 뉘앙스가 풍긴다.

(9) 빨리 가잣

"서다, 앉다"등의 動詞는 命令法과 같이 "-어 있다"와 統合되어 完了共同法을 形成할 수 있다.

(10) 여기 섰자
(11) 여기 앉았자

이들 역시 "-아/어 있자"로 代置할수 있으므로 短縮形으로 볼수 있다. 그것은 하게體 이상에서는 "-아/어 있다(계시다)"에 依存하기 때문이다(例. 앉아 있세, 앉아 계십시다). 形成節次와는 관계없이 화자가 상대방에게 急速한 行動遂行의 完了를 提案하는 完了共同法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圖表에 提示한 "-자꾸나, -자고(구), -세나, -ㅂ시다요"의 用法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高永根 1974a : Ⅲ章 圖表 및 §3.3 참조).

---

[29] 共同法의 共起約 制約(cooccurence constraints)에 대해서는 張奭鎭(1973 : 104~105) 참조.

"-자꾸나"는 形態素確認작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큰사전」을 따라 感嘆的 意味를 賦與하기로 한다. 하게體 이상에서는 "그려"와의 統合에 依支하였지만(高永根 1974a : §4.2), 해라體에서는 "-구나"와의 統合에 依存하는 것으로 解釋한다.

(12) 숫제 나와 같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자꾸나(稚岳山 1 : 362)

"-자고(구)"는, 前項의 命令法 "-(으)라고(구)"와 같이 "-자"에 비해 婉曲한 一面이 있지 않은가 한다.

(13) 자! 그럼 가자구(三代 : 106)

"-세나"는 하게體의 共同法 "-세"와 "나"로 分析되지마는 "-세"와의 意味上의 차이를 明白히 規定하기 힘들다(高永根 1974a : §3.3).

(14) 궁리 말구 가 보세나(그려)

하게體의 命令法 "-게"에 "나"가 첨가됨으로써 許諾法이 形成되었음을 감안하면(高永根 1974a : §3.2)덜 강제성을 띤 意味를 줄수 있지 않나 한다.

"-ㅂ시다요"는 "-ㅂ시다"와 비교해 볼때 이외는 差異를 인정하기 어렵다. "-ㅂ시다"의 단순한 變異形이 아닌가 한다.

(15) 자, 어서 같이 좀 드십시다요(三代 : 42)

共同法에서는 다른 文體法과 같이 合成形이 存在한다(高永根 1974a : §3.3). 모두 "-다고 하자" 등의 縮約形으로 解釋된다.

3.2.2. 다음으로 單獨的 場面의 경우를 살펴보자.

(16) 내집으로 가자,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어지나 내누이 보는 앞에서 단판 씨름을 허자(織女下 : 317)

(17) 네 이년들 얼마나 잘들 사는가 어디 좀 보자(雉岳1 : 346)

이들은 獨白의 用例인데 주체는 모두 話者 자신이다. 이런 점에서는 用例 (5)(6)과 共通되지만 獨白하는 狀況이므로 청자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화자의 行動遂行을 상대방에게 提案할 수 없다. 用例(16)은 화자 자신 決心하거나 다짐하는 것이고 用例(17)은 統合上의 特殊性이 없는바 아니지만("보다"참조) 화자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念頭에 두고 벼르는 것이다. 따라서 獨白에서의 {-자}의 意味는 共同法의 보편적 用法과는 가장 거리가 멀지 않은가 한다.

地文과 公開的 狀況에서의 사정은 어떠한가?

(18) 다음으로 地文의 用例부터 검토하기로 하자

이 用例는 필자가 써본 것인데 글을 쓸때 말머리를 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흔히 쓰인다. 그 글이 합쇼體로 一貫하고 있으면 "-ㅂ시다"가 나타난다.

大衆을 상대로 하는 標語나 公開的인 表現에서 작성자의 嗜好如何에 따라 "-자,-ㅂ시다"가 쓰이기도 한다.

(19) 귀중한 문화재 빠짐없이 등록하자
(20) 믿음과 사랑으로 협동하고 도웁시다

公開席上에서는 "-ㅂ시다"가 많이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婉曲하게 表現될 수도 있다.

單獨的 場面의 경우도 獨白만 除外하고는 모두 작성자(필자, 연사)나 當局이 독자나 대중(청중)을 향하여 行動을 共同으로 遂行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3.2.3. 共同法 {-자}는 話者가 상대방에게 共同으로 行動할 것을 提案하는 것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命令法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行動할 것을 要求(demand)하는 것이었는데 共同法은 같이 行動할 것을 提案(propose)한다는 데 差異點이 있다.[30] 이러한 用法을 띠고 있는 形態素 {-자}는 일찍부터 獨立된 文體法으로 確立된 바 있으나 그 傳承過程은 順坦하지 않다. Underwood는 propositive termination이라 하여 尊卑法에 따라 語形을 提示하고 用法上의 特殊性까지 記述하고 있다(1890, 1915 : 114~115). 外國文法家의 나무랄데 없는 이 見解는 金熙祥에만 보일뿐(1911 : 52~53), 周時經등의 初期文法家에게는 전혀 注目되지 않았었다. 朴勝彬이 命令文 가운데서 共同式을 設定한 일이 있고(1931 : 185) 合意的 命令, 共同未來 등으로 부른 일도 없지 않으나 최현배에 와서야 꾀임끌(월)이란 이름으로 다시 獨立된 文體法으로 體系化되었다(1934 : 39~41 ; 1937 : 314~315, 1156~1157). 이후 대부분의 文法家는 이끎법(청유법), 共同法 등과 같이 獨自的 文體法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文·法·形"의 接尾는 觀點에 따른 조처이다. 單獨的 場面의 獨白을 除外하고는 共同 또는 單獨으로 行動할 것을 提案하는 것이므로 提案法이라 함이 妥當할 것이나 편의상 **共同法**을 採擇하기로 한다(이희승 1950). **法**을 接尾한 것은 文體法의 하나라는 것과 그 자신이 敍法의 職能도 發揮함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形態素 {-자}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共同的 行動遂行의 提案이 보편적이었고 부분적으로 화자자신이나 상대방의 行動遂行을 提案하는 일도 있었으며 극단적으로는 單獨的 場面에서 화자의 決心이나 벼름의 用法이 파악되는 일도 없지 않았다. 公開的 狀況에서는 前述한 命令法과 같이 (§3.1.3) "-(으)ㄹ것"등에 依支하는 일도 있다.

3.3. 約 束 法

約束法은 用法이 비교적 간단하며 나타나는 狀況 또한 相關的 場面에 국한되므로 項目을 구분하지 않는다.

(1) 거문고 타라, 노래 부르마(交隣 : 180)
(2) 내가 오늘 혼처를 사면 구하여 봄세(牧丹峰 2 : 173)
(3) 모레는 비가 오더라도 오리다(交隣 : 21)

約束法도 前述한 命令·許諾法과 같이 動詞에 局限됨이 原則이나 接尾辭 "-하다"와 統合되는 形容詞는 {-마}를 取할 수 있다.

(4) 오냐, 충실하마
(5) 조용함세

---

[30] 共同法에 대해서는 최현배(1961 : 840~841), 이홍배 (1970, 1971), 張奭鎭 (1973 : 103~110) 참조

約束法은 話者가 상대방에게 자기의 意思를 베풀어 그 實現을 約束하는 것이다.[31] {-마}는 언제든지 第一人稱과만 呼應되며 따라서 主語가 顯在하지 않음이 보통이다. 그러나 用例(2)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行動遂行을 강조하고자 할때는"나, 우리"가 드러나기도 한다.

文體法의 分析過程에서도 지적하였지만 約束法은 해라·하게體에서만 固有한 形式이 存在하고 하오·합쇼體에서는 推測法의 先語末語尾가 그 자리를 補充해 준다(高永根 1974a : §3.4; Ⅵ장 圖表). {-리-}의 約束的 意味는 推測法의 周邊的인 것이다(高永根 1965 : §3.4).

約束法의 隨意的 變形인 "-(으)르께"의 用法을 살펴보기로 한다(高永根 1974a : §3.4).

(6) 그래 내일 꼭 올께

이 用例는 "-(으)마, -(으)ㅁ세"로 代置할 수 있다.

(7) 아주 적지만 한달에 내 삼원씩만 쓸께요(川邊 : 370)

"-(으)리다, -(으)오리다"로 바꿀수 있다. 따라서 用例 (6)(7)은 約束法의 범주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用例는 連結語尾로 看做된다.

(8) 내가 불러 줄께 받아 써 보아라

이는 "-르것이니"의 줄어진 形式으로서 "-르터이니"로도 대치 가능하므로 終結語尾인 用例(6)과는 구별해야 한다. 音相과 意味가 同一하다는 점으로는 兩者를 同一視할수도 있겠으나 用例 (6)은 "-르것이니"로의 代置가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처리가 불가피하다.

{-마}를 하나의 文體法으로 獨立시킨 것은 비교적 후기의 일이다. 約定未來라 하여 時制의 범주에서 처리하거나 說明法 가운데 넣는 일이 보통이었는데 洪起文 (1947 : 360)과 이희승(1950)에 와서야 獨自的 文體法으로 設定되었다.

體系가 不完全하여 하오·합쇼體는 다른 形式으로 補充되기는 해도, 해라·하게體에서는 獨自的인 形式이 存在하며 그 位置는 語末이라는 것과 반드시 動詞에만 나타난다는 分布上의 制約이 있다. 이러한 점은 意味面에도 反映되어 화자의 意志 곧 約束의 用法이 파악된다. 約束의 意味는 先語末語尾 "-겠-"에 依支할 수도 있지마는 이는 모든 用言에 두루 나타나므로 {-마}와는 構造的 樣相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說明法 {-다}와는 같은 語末語尾라는 점에서, 때로는 "-겠다"로도 代置될수 있다는 점에서 共通點이 없는바 아니다. 그러나 {-다}는 모든 用言에 나타나므로 {-마}와는 구조적 樣相이 다르다. 이상과 같은 構造·意味面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몇몇 文法家의 所見을 좇아 하나의 文體法으로 認定하여 **約束法**이라 일컫기로 한다. **法**의 接尾根據는 前述한 命令·共同法의 경우와 같다.

3.4. 警 戒 法

警戒法은 「큰사전」이나 「국어대사전」(이희승)의 설명대로("-르라" 표제어 참조) 혹시 잘못될까 또는 행여나 그러할까 염려하면서 警戒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國語文體法의 硏究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Ramstedt가 volitive 가운데서 preventive라 하여 설정한 일이 있고(1939 : 85), 金敏洙가 그의 終止法 體系안에서 警戒形을 둔 것(1960 : 34)이 고작이었

[31] 이정민(1973)에 의하면 {-마}는 kill과 같은 malicious act를 意味하는 動詞와는 나타날수 없다고 한다(p.9). 이는 「큰사전」의 定義 "자기의 하려는 생각을 즐거이 베풀어..."를 고려하면 흥미있는 見解로 보인다. 앞의 許諾法도 이러한 制約을 받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은 우리의 文體法 記述과 큰 관계가 없다.

다.

(1) 던지다가 사람을 맞힐라(交隣 : 31)
(2) 왜 옷도 아니 벗고 등걸잠을 자느냐? 감기 들라(鬼의聲 : 266)
(3) 말좀 나직나직하게. 길순이 들으리(鬼의 聲 : 7)
(4) 웬걸요 이렇게 전신이 흙투성이야요. 고운 옷에 흙 묻으리다(李光洙. 無情)

警戒法은 前述한 命令·共同·約束法과 같이 動詞에 局限된다. 상대방의 行動이 잘못될까 염려하면서 미리 경계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청자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用例(1)을 取한다면 사람을 맞히지 않도록 던지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계하고 있다.

{-ㄹ라}는 單獨的 場面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獨白에 국한되는바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화자 스스로 主體의 지나친 行動을 경계하는 것이다.

(5) 어어 저놈 넘어질라

文體法의 分析過程에서도 指摘했지마는(高永根 1974a : §3.5), 警戒法은 해라體에서만 固有한 形式이 存在하고 하게體 이상은 推測法의 先語末語尾{-리-}에 依存한다(用例3, 4). 이런 점으로는 앞의 約束法보다는 形式이 더 不備하다. {-리-}의 警戒的 用法은 推測法의 周邊的 用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高永根 1965 : §3.4.1).

아래의 用例는 音相은 警戒法의 해라體와 같으나 用法이 判異하다.

(6) 고년을 당장 죽여 버릴라(桃花園 5 : 17)
(7) 이년 바로 대어라. 어름어름하다가는 당장에 뒈질라(稚岳山 1 : 292)

{-(으)ㄹ라}의 周邊的 用法으로 처리해야 할지 推測說明法 "-(으)리라"의 縮約으로 보아야 할지, 用例가 不足하여 斷言하기 어렵다. 用例 (6)은 後者로, (7)은 前者로 解釋되기도 한다.

앞의 約束法과 같이 動詞에 局限되며 位置가 語末이라는 構造的 樣相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警戒法**이라 부르고자 한다. **法**의 接尾根據는 다른 文體法과 같다.

4. 體系의 構築 —意志的 敍法과 文體法 體系—

4.1. 지금까지 검토한 각 文體法을 綜合함으로써 意志的 敍法을 體系化하고 아울러 文體法의 體系定立을 試圖하려고 한다.

文體法은 필자가 年前에 定義한 바와 같이 話者가 聽者에 대하여 意思를 傳達하는 表現上의 方法이다(高永根 1965 : §1.2). '表現'이란 修辭學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說明·疑問등의 文章終結의 樣式을 가리킨다. 聽者에게 意思를 傳達함에 있어서는 聽者의 意圖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後者에는 說明法, 感嘆法, 約束法이, 前者에는 命令·許諾法, 共同法, 警戒法이 각각 包括될수 있다. [32]

[32] 필자의 文體法이란 Jespersen의 classification of utterance에 해당하는바(1965 : 302), 이 方面에 대한 詳細한 것은 Gardiner (1963 : 181~190) 참조.

한편 이상의 文體法으로써 話者가 聽者에게 意思를 傳達하는 데 있어서는 글월의 內容 가운데 話者의 心理的 態度가 表現되는 이른바 敍法의 범주가 確認되기도 한다(高永根 1965: §1.3, §3.6.2). 話者는 事態를 現實的으로 파악할수도 있고 非現實的으로도 볼수 있다. 前者는 敍實法(fact-mood)이라고도 하는바 필자가 前日 體系定立을 試圖했던 直說法과 回想法이 所屬되고 後者는 敍想法(thought-mood)이라고 하는바 推測法이 바로 그것이다(高永根 1965 : §3.6.2). 動作을 現實化시키고자 하는 話者의 意志 또한 心理的 態度로 볼수 있는바 敍意法(will-mood)이라고도 한다. 敍實法과 敍想法은 **無意志的 敍法**(containing no element of will)으로 包括할 수 있고 敍意法은 **意志的 敍法**(containing an element of will)이라 달리 말할 수도 있다(Jespersen 1965 : 320~321). 필자가 본고에서 文體法과 함께 體系化를 試圖하는 것이 바로 이 敍意法이다.

4.2. 文體法(2)의 범주에 包括시킨 命令法·許諾法, 共同法, 約束法, 警戒法語尾들의 位置는 語末이며 動詞에만 統合된다. 한편 이들이 나타나는 글월의 主語는 第一人稱과 第二人稱이다. 約束法은 第一人稱 곧 話者이고 命令·許諾法과 警戒法은 第二人稱 곧 말받는상대방이며 共同法은 화자와 청자와의 合同("우리")이다. 이에 대해서 無意志的 敍法인 敍實法과 敍想法의 形態素들은 그 位置가 先語末이었고 品詞 및 人稱에도 制約을 받지 않았었다. 또 意志的 敍法形態素들은 原則的으로 過去時制의 "-었-"과 統合될수 없으며 未來의 "-겠-"과는 더우기 그 統合이 불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無意志的 敍法形態素는 原則法, 推測法, 確認法이 "-겠-"을 取하지 않는 점(高永根 1965 : §3.3.1, §3.4.1, §3.5.4; 1967 : 59)만 제외하고는 "-었-, -겠-"과의 統合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構造 및 分布上의 特徵은 이들 상호간에 意味上의 共通性을 要求한다. 상대방에게 行動할 것을 要求(demand)하거나 화자 자신이 行動할 것을 約束한다. 前者에는 命令·許諾法, 共同法, 警戒法이, 後者에는 約束法이 각각 所屬된다. 兩者에서 우리는 "行動할"이라는 意味上의 共通性을 抽出할 수 있다. 전자는 화자의 意志가 상대방에게 미침에 대하여 후자는 화자 자신에게 미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상의 다섯가지 文體法들을 前述한 意志的 敍法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33]

앞에서 위의 文體法들은 未來時制의 "-겠-"과 統合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意志的 敍法 自體가 自然的인 未來時間의 意味를 表示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된다. 그것은 "行動할"이라는 意味上의 共通性에서 確然히 드러난다.

文體法의 檢討에서 드러난 現代前期國語의 敍法體系는 先語末語尾에 依存하는 敍實法, 敍想法, 强調法 등의 無意志的 敍法과 語末語尾에 依存하는 意志的 敍法으로 構成되어 있다. 原則·確認과 같은 强調法은 分布가 매우 制約되어 있어서 說明法 {-다}와만 統合되며(高永根 1967 : 57), 또한 語末語尾에 隣接해 있다. 또 未來時制와도 統合될 수 없다. 이점은 敍想(推測)法 "-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構造上의 特徵은 意味面에도 反映되고 있다. 敍想法은 경우에 따라 約束의 意味가 把握되기도 하며(高永根 1965 : §3.4), 强調法(原則·確認)은 화자의 긴장된 태도에 의하여 분위기가 硬化된다는 점(高永根 1965 : §3.6.2)에서 意志的 敍法의 一面도 띠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敍想法과 强調法은 構造的으로나 意味上으

[33] Jespersen의 notional mood의 "containing an element of will"에는 Jussive or Command(go), Precative (go, please), Hortative (let us go), Permissive (you may go if you like), Promissive (I will go if it shall be done)등이 포함되어 있다.

로나 典型的 無意志的 叙法인 叙實法과, 叙意法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强調法에서 그러한 점을 더 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文體法을 圖表化할 때마다 提示했으며(1974a), 用法을 파악하는 본고에서는 더러 留意해 왔던 해요體와 하지요體의 叙法上의 特徵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를 중심으로 작업 하기로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의 意味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종래에는 兩者를 尊卑法의 觀點에서 반말이라고만 하였지, 이들의 意味를 相關的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34] 그러나 "-지"에 대해서는 그 意味를 알고자 하는 試圖가 있어 왔다. 「큰사전」에 의하면 "자기 생각에 그럴듯하다는 뜻으로 베품, 물음, 시킴, 이끎, 느낌의 모든 말씨를 끝맺는 말"로 定義되어 있고 文法家에 따라서는 "推量, 짐작"등으로 불러 왔다. 위의 「큰사전」에도 言及되어 있고 필자의 文體法 分析過程에서도 確認한 바와 같이(1974a) "-지"는 대부분의 文體法으로 나타난다.

「큰사전」의 定義를 妥當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는 화자의 主觀的 想念을 表示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1) 철수가 일을 하지요(說明) *cf.* 해요
(2) 값이 비싸지요?(疑問) *cf.* 비싸요?
(3) 잔소리 그만 두지(命令) *cf.* 두어
(4) 자네도 함께 가지(共同 *cf.* 가

(1)은 主體가 일한다는 사실을 짐작해서 설명하는 것이요[35], (2)는 물건 값이 비싸다는 사실을 스스로 짐작하면서 청자의 意見을 묻는 것이요, (3)은 잔소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것을 상대방에게 勸告하는 것이요, (4)는 청자와 같이 行動함이 좋겠다는사실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오른쪽의 해요체는 화자의 짐작이나 想念이 內包되지 아니한 단순한 說明, 疑問, 命令, 共同으로서 매우 叙實的이다. 이리하여 필자는 해(요)體를 叙實法, 하지요體를 叙想的으로 보아 叙法의 觀點에서는 처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現代國語의 叙法體系는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에 依存하여 화자의 태도가 意志的으로 無意志的으로 表示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해(요)體와 하지요體에 依支하여 叙實的으로 叙想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4.3. 現代國語의 文體法은 前述한 Jespersen의 意見을 참고하면(§4.1), 아래와 같이 體系化할 수 있다.

1. 聽者의 意圖에 영향을 안미치는 것
   聽者에게 陳述함……(1) 說明法
   聽者에게 約束함……(2) 約束法
   話者자신 感嘆함……(3) 感嘆法

---

[44] 최근 張奭鎭교수가 필자와 같은 方法으로 "-지"의 用法을 면밀히 檢討한 일이 있다 (1973 : 127~131).

[35] "-지(요)"가 說明法으로 나타날때 第二人稱(나, 우리)과 呼應되면 約束의 用法이 把握된다. 圖表化할때는 約束도 說明法에 넣어 특별히 그 用法을 明示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요"의 下層階級語體는 約束뿐만 아니라 許諾의 用法도 明示했었는데 (1974a : Ⅵ章圖表), 이는 兩者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을 파악하지 못한 필자의 不注意의 所致이니 독자들의 諒解를 바란다.

2. 聽者의 意圖에 영향을 미치는 것
   聽者에게 情報를 要求함……(1) 疑問法
   聽者에게 行動을 要求함
   ① 單獨行動 ……(2) 命令·許諾法
   ② 共同行動 ……(3) 共同法
   聽者에게 行動을 警戒함……(4) 警戒法

國語의 文體法을 構造的 構相과 意味上의 特殊性에 留意하면서 體系定立을 試圖해 보았으나 立體法 상호간의 경계가 그리 明白하게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說明法과 感嘆法, 感嘆法과 疑問法, 疑問法과 命令·共同法 사이에서 그러한 傾向이 현저하였다.[36]

지금까지의 文體法의 用法檢討는 이른바 直接引用을 中心으로 한 것이었다. 間接引用에서는 文體法 및 敍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37] 文體法의 圖表를 작성할 때 이른바 引用의 조사 "고"와 統合된 形式을 보이기는 했으나(1974a),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文體法(1) 가운데서는 說明法과 疑問法만 確認되고 感嘆法은 說明法으로 바뀐다.

(5) 꽃이 참 예쁘구나 → 꽃이 매우 예쁘다고 한다

그런데 說明法에서 確認되는 原則法과 確認法은 나타나지 않는다. 直說原則法은 直說法만으로, 回想原則法은 回想法만으로, 直說確認法은 直說法만으로, 推測確認法은 推測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6) 못 쓰느니라(直說原則) → 못 쓴다고 한다(直說)
(7) 담력이 크더니라(回想原則) → 크더라고 한다(回想)
(8) 밥을 먹것다(直說確認) → 밥을 먹는다고 한다(直說)
(9) 내 말 하렷다(推測確認) → 내 말 하리라고 한다(推測)

推測疑問法은 用法如何에 따라 "-겠느냐"나 "-겠다"등에 依存함이 일반적이 아닌가 한다.

(10) 금송아지 한 마리 못 사 주랴 → 금송아지 한 마리 못 사 주겠느냐고 한다.
(11) 한번 먹어 볼까? → 한번 먹어 보겠다고 한다
(12) 가 볼까? → 가 보자고 한다.

한편 文體法(2)도 달라지는 것이 있다. 命令法과 許諾法은 同一形式으로, 約束法은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說明法에 依存하는 수도 있다. 警戒法은 疑問法의 形式을 빌기도하

---

[36] Quirk, et al. (1927 : 386)에는 文體法의 neatness를 해치는 要因으로서 function의 중첩, syntactic class와 discourse function이 1對 1로 對應 안되는 것의 두가지를 들고 있다. Gardiner (1963 : 190)는 speaker, listener, word, thing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특징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고 한다.

[37] 直接引用과 間接引用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論議가 紛紛하다. 이홍배(1971 : 60)는 後者가 前者로부터 導出될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張奭鎭(1973 : 34)은 變形에 의해 서로 導出하기가 힘들을 말하고 있으나 間接引用 가운데는 直接引用과 有關한 것이 있다고 하는 前提에 左袒하려고 한다(南基心 1973 : 36).

나(高永根 1974a : §3.5), 命令法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共同法은 變함이 없다.

(12) 가거라(命令法) → 가라고 한다(間接命令)
(13) 가려무나(許諾法) → 가라고 한다(間接命令)
(14) 가마(約束法) → 가마고 한다. 가겠다고 한다(直說)
(15) 떨어질라(警戒法) →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다(疑問法), 떨어지지 않도록(말도록) 하라고 경계하다(間接命令)

直接引用과 間接引用에서의 文體法과 叙法(無意志的)體系는 다음과 같이 圖式化할수 있다.

	文 體 法	叙 法
直接引用	說明, 疑問, 感嘆, 命令(許諾), 共同, 約束, 警戒	直說, 回想, 推測, 原則, 確認
間接引用	說明, 疑問, 命令, 共同*(約束)	直說, 回想, 推測

*는 約束法이 獨自的으로도 나타날수 있고 說明法에도 依存함을 가리킨다

直接引用에서는 7文體法體系이고, 間接引用에서는 4文體法體系이며, 直接引用에서는 無意志的 叙法이 5가지인데 대해 間接引用에서는 3가지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國語의 文體法과 叙法體系는 종전과 같이 直接引用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間接引用과의 有機的 關聯아래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間接引用形에 어떤 文體法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直接引用形에서 그것을 否定하는 根據는 되지 못한다.[38] 먼저 直接引用에서의 體系를 論議하고 間接引用에서의 狀況을 고찰한 다음 相互關聯性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間接引用에 나타나는 4가지 文體法은 疑問間接引用法 "고 하느냐"등과 統合하여 反問法(echo question)을 形成한다.[39]

(16) 가(ㄴ다, 느냐, 라, 자)고 하느냐?(하는가, 하오, 합니까)

그러나 反問法으로 나타나는 실제의 語形은 提報動詞(the verb of reporting)가 省略된것이다.[40]

(17) 가ㄴ다(느냐, 라, 자)고?

이른바 指定詞에 統合되면 "고"가 脫落될수도 있고 說明法의 異形態 "-라"마저 안 나타날수도 있다.

(18) 마음이 가난한 자라?(朴珍. 끝없는 사랑)
(19) (너는 해…해고다) 해고…?(同上)

4.4. 우리의 文法硏究史를 回顧함으로써 文體法과 叙法硏究에 대한 발자취를 더듬어 보

[38] 南基心(1973 : 52)은 필자와는 다른 觀點에서 文體法(그의 叙法)의 間接化를 試圖하고 있는데 필자의 이른바 無意志的 叙法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間接引用에서 다른 形式으로 바뀌는 感嘆·約束·許諾法 등은 獨自的 文體法의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39] 反問法에 대해서는 Jespersen (1965 : 304), Quirk, et al.(1972 : 408~410) 참조.

[40] 최근 張奭鎭교수는 國語의 反問法을 상세히 고찰한 바 있다(1973 : 34~37 ; 123~126).

기로 한다.[41]

草創期文法家 가운데서 周時經 등은 끗 또는 맺이란 이름아래 "이름, 물음, 시킴, 홀로"의 4文體法을 設定한 일이 있고(周時經 1910 : 92~94 ; 김두봉 1916 : 124), 金熙祥은 **終止吐**란 이름아래 "平述吐, 疑問吐, 共同吐, 命令吐"를 두고 있다(1911 : 52~53). 後者는 Underwood의 體系와 同一하다(後述). 최현배도 金熙祥과 같이 넷을 設定하였으되 그 상호관계를 상세히 究明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1937 : 1156~1158).

월 ┬ 따따로(個別的) ┬ 單獨的 態度 ……베품월
   │   └ 關係的 態度 ┬ 말하는이 中心 ……시킴월
   │   └ 맞은편 中心 ……물음월
   └ 함 께(共同的) ……꾀임월

그의 見解가 어떤 文法理論에 根據하였는지 速斷할 수 없으나 시킴월과 물음월을 한 동아리에 넣은 것은 Jespersen의 영향이 없지 않은 것같다.[42] 그러나 꾀임월을 다른 것과 對立시킨 것은 再考의 여지가 있다. 이는 主語가 화자와 청자와의 合同이라는 점 이외에는 시킴월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마땅히 시킴월과 함께 처리되었어야 할 것이다.

朴勝彬은 終止助詞를 **文의 體法**을 表示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平叙文, 疑問文, 命令文, 感嘆文"을 두고 있다(1931 : 184~186, 204). 平叙文과 疑問文에 필자가 體系化했던 無意志的 叙法을 "單純式, 報道式, 求報道式"이라 하여 下位區分하고 있는 점은 吟味할 만하다.[43] 우리의 約束法을 **約諾式**이라 하여 平叙文에 所屬시키고 있는 점은 다소 문제가 되나 尊卑法에 따른 語形의 設定은 우리의 體系와 다름이 없다. 命令文을 單純式과 共同式으로 나눈 것은 構造上의 差異點과 意味上의 共通性을 고려한 所致가 아닌가 한다.

최현배 이후로는 四分法이 支配的이었고 六分내지 七分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그가운데서 特記할 것은 洪起文과 이희승이다. 洪起文은 **語法**이란 이름 아래 "說明法, 疑問法, 命令法, 共同法, 約束法, 感嘆法"의 여섯을 두고 있다(1947 : 360~361). 주목 되는 것은 前代의 文法家들이 說明法에 넣었던 約束法을 따로 세운 사실이다. 그는 또 필자의 無意志的叙法을 **語式**이라 하여 說明法과 疑問法에서 體系化하고 있는데(洪起文 1947 : 361~364), 이는 前述한 朴勝彬의 그것과 脈絡이 닿지 않는가 한다(高永根 1971). 李熙昇은 **文體法**이라 하여 前述한 洪起文의 六分法에 **許諾法**을 추가하고 있다(1950 : 116). 特히 그의 文體法은 앞의 朴勝彬의 文의 體法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文體法을 尊卑法과 함께 結語法에 包括시켜 그 相關關係를 一目瞭然하게 圖表化하고 있는 점은 國語終結語尾 연구를 위한 礎石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 文體法이란 名稱은 '文體'라는 冠形語 때문에 화자와 청자와의 關係를 包括하기에는 不足한 점도 없지 않으나 朴勝彬의 文의 體法이 "文의 用法에 依하야 分類되는 狀態"로 定義되어 있음을 보면 그렇게 무리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最近 許雄은 中世國語文法을 記述하는 자리에서 **마침법**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表를 제시하고 있다(1969 : 96).

---

41 無意志的 叙法의 그것에 대해서는 극히 부분적으로 더듬어 본 일이 있다(高永根 1965 : §3.6.4).

42 최현배는 Jespersen (1924, 1965)를 다른 곳에서 직접 引用하고 있다(1937 : 153).

43 필자의 無意志約 叙法體系는 朴勝彬의 **式**과 類似하다(高永根 1971).

마침법(의향법) { 들을이에게 요구없음(서술, 느낌, 약속)……서술법
들을이에게 요구 있음 { 대답요구 ……물음법
행동요구 ……시킴법
같이행동요구 ……꾀임법 }

이도 최현배의 것과 같이 Jesperse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필자의 體系와 큰 다름이 없다(§4.3). 間接引用에 나타나는 文體法의 語尾를 履行動詞와 관련하여 그 挿入規則을 論議하거나(이홍배 1970, 1971), modality와 관련시키어 文體法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試圖도 일어나고 있다(張奭鎭 1973).

外國人의 思索은 獨特한 面이 있다. Underwood는 termination이란 이름아래 說明法·疑問法은 indicative mood에서, 共同法과 命令法은 volitive mood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體系定立을 試圖하고 있다(1915 : 107).

From the Indicative { Declarative
Interrogative
From the Volitive { Propositive
Imperative

또 그는 termination을 종합하여 mood論을 펼치고 있다(Underwood 1915 : 116). Indicative Mood는 事實(fact)을 陳述하거나 事實與否를 묻는 것이며, volitive mood는 화자의 所願(wish)을 表示하는 것으로 共同法과 命令法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英文法에 영향받은 바 많겠지만 國語의 叙法體系를 이렇게 簡要하게 提示한 일은 그 이후에도 없었다. 필자의 叙法에 대한 記述態度는 Underwood의 것과 根本的으로 一致한다.[44] Underwood의 文法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Ramstedt는 Verba Finita란 이름아래 the affirmative indicative, the verb in interrogative sentence, the volitive form의 셋을 包括하고 있다. 前二者는 印歐語의 indicative에, 後者는 Underwood의 volitive form에 각각 有關하다고 한다(1939 : 70, 80, 81). 특히 그는 volitive form을 11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같은 系列의 文體法이라도 尊卑法이 다르면 意味가 다른 것으로 처리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例를 하나 들면, "-어라"(들어라)를 imperative, "-게"(일하게)를 precative로 보는 점이 그것이다.[45]

Martin의 體系는 第二者와는 다른 一面을 보여준다(1954 : 36~38).

1. Assertive (1a Declarative, 1b Propositive)
2. Attentive (2a Interrogative, 2b Imperative)
3. Apperceptive

그는 modifier와 함께 文體法을 mood로 처리하고 있다. 疑問法과 命令法을 attentive에 넣은 것은 양자의 意味上의 共通性을 고려할때 妥當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共同法은 說明法과 함께 assertive에 넣은 것은 形式의 類似性에 根據한 것으로서 容認될 수 없다(高永根 1974a : §3.1.3). 共同法은 오히려 attentive에 歸屬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感嘆法(apperceptive)은 declarative와 함께 assertive에 넣음이 옳았을 것이다.

[44] 필자가 1965年 無意志的 叙法의 體系定立을 試圖할때는 Underwood의 이 부분을 주의하지 못했었다.
[45] 이런 態度는 modality의 觀點에서 合理化될수도 있다(張奭鎭 1973).

우리文法家와 外國人의 思索을 비교해 볼때 無意志的敍法은 前者에 依해 먼저 着眼되었고(朴勝彬, 洪起文), 意志的 敍法은 後者에 의해 試圖되었다. 文體法은 최현배와 Martin에 의해 體系定立이 試圖되었고 최근에 와서(許雄) 어느정도 사실에 가까운 體系確立을 보지 않았나 한다. 필자가 構築한 文體法 및 敍法體系는 이상과 같은 內外 文法家들의 업적을 土臺로 한 것이다.

5. 體系의 動搖

필자가 얽어 본 現代前期國語의 文體法과 意志的 敍法의 體系가 언제 어떠한 過程을 밟아 形成되었는지는 國語文法(形態)史를 考慮하지 않는 現在로서는 그 事情을 섣불리 斷定할수 없다. 그러나 現代前期國語의 자료에 限定하더라도 動搖의 樣相을 발견할 수 있다.[46] 文體法體系의 動搖는 體系內部의 變化와 體系自體의 變化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하게體의 說明法語尾의 形式統一을 들수 있다.

形容詞語幹에 統合되는 "-(으)이"는 「三代」와 「華想譜」를 비교하면 흥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周知하다시피 위 作品의 作家인 廉尙燮과 兪鎭午는 같은 서울출신이라 하더라도 前者가 後者보다 9年長이다(高永根 1965 : §1.4). 그런데 「三代」에서는 例外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으)이"가 統合되는데 대해 「華想譜」에서는 간혹 "-네"가 보인다.

(1) 자넨 세상 난관을 당해두 태연하니 부러우네(華想 : 413)

이러한 일은 動詞語尾에 依한 類推現象이겠지만 開化期資料에서도 散見된다.

(2)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알아 듣기 어렵네(牧丹峰 1 : 104)
(3) 참 딱하네그려(林圭 : 367)

"-(으)이"가 "-네"로 合流되기 시작한 것은, 필자의 자료선택범위 안에서는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現代後期國語에는 일부 老年層에만 약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47]

이른바 指定詞語幹에 통합되는 "-르세"도 動搖하고 있다. "-(으)이"보다는 덜하지만 開化期에 "-네"가 등장하고 있다.

(4) 한문하고 싸우다 죽을 결심이네(林圭 : 524)

이른바 指定詞語幹에 統合되는 합쇼體의 설명법 "-올시다"도 前期에는 아주 보편적이었으나 後期에는 "-ㅂ니다"로 統一되는 실정에 있다.

둘째, 現代前期國語의 文體法體系는 安定되어 있지 않다.

說明法은 극소수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敍法의 如何에 관계없이 해(요)體로 變貌하고있다

(5) 연속사진이 무척 재미있어(織女上 : 176) *cf.* 있더라
(6) 어머니, 오늘 술 먹었어요(幻戱 : 366) *cf.* 먹었읍니다.

---

[46] 본장은 高永根(1965 : Ⅳ ; 1967 : Ⅴ ; 1974a : Ⅵ)와 關聯되는 面이 있음을 밝혀 둔다.

[47] 數年前 (1968年頃) 月灘 朴鍾和 선생은 "-(으)이"는 이미 낡은 語形이 되어 버렸다고 필자에게 證言한 바 있다.

오른쪽의 語形은 해라·합쇼體의 說明法으로서 왼쪽의 해(요)體에 對當될 수 있다. 해라體의 "-것다"와 하게體의 "-네, -데"등에 "요"가 統合되어 說明法을 形成하는 일도 있다(高永根 1974a : §4.3).

疑問法도 해(요)體로 變貌한다.

(7) 왜 대답이 없어?(빈상설 2 : 25) *cf.* 없는가

(8) 경애가 돈을 내 놓았어요?(三代 : 270) *cf.* 놓았읍니까

疑問法은 說明法과는 달리 하게體로 認定되는 語尾에 "요"가 統合되는 일이 많다(例. -는가요, -다니요 등)(高永根 1974a).

感嘆法은 해(요)體로 나타나는 일이 적지 않으나 해라·하게體로 認定되는 語尾에 "요"가 統合되에 形成되는 일도 있다(例. -는군요, -로군요 ; -는구면요, 거든요)(高永根 1974a).

命令·許諾法과 共同法은 해(요)·-하지(요)體로, 約束法은 "-겠-"을 先接한 해(요)體(例. -겠어(요))로 變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警戒法은 語彙論的 節次에 依支하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 한다(例. -지 않도록 해(요))(1974a : §4.3).

이상과 같이 現代國語의 文體法은 모두 動搖를 일으키고 있다. 해라·하게體의 文體法들은 대개 해體로 변모하고, 하오·합쇼體의 疑問法과 感嘆法은 요統合形에도 依存하고 있다. 이렇게 文體法이 簡素化함에 따라 固有한 marker를 잃게 되어 語調의 負擔量이 한층 커지지 않았나 한다(高永根 1974a : §2.1.5).

우리가 살펴 본 動搖狀況은 相關的 場面의 直接引用이었다. 間接引用의 體系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單獨的 場面에서는 뚜렷한 변모가 눈에 띄지 않는다(高永根 1975b : §4.1).

6. 結論(展望)

이상과 같이 각 文體法의 構造的 樣相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究明함으로써 文體法과 敍法體系의 定立을 試圖해 보았다.

形式中心의 分析過程에서는 잠정적으로 8個의 文體法을 想定한바 있었으나(高永根 1974a : I), 許諾法을 命令法에 包括함으로써 7個를 確定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서 約束法과 警戒法은 그 形式이 不備하여 獨自的 文體法으로서 설정가능성이 의심되는 바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尊卑法 가운데서 가장 基本的인 形式이라 할 수 있는 해라體에서 獨自的으로 나타나며 그들 나름의 構造的내지 意味上의 特殊性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설정을 正當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文體法의 體系를 論議함에 있어서는 直接引用과 間接引用으로 구분해야 하며 敍法 特히 無意志的 敍法體系를 論議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태도가 要望됨을 確認하였다.

終結語尾를 대상으로 文體法과 敍法體系 전반을 論議해 보았지만 未盡한 곳이 많다. 各 文體法의 合成形에 대한 合成條件[48]과 語調의 문제 등은 다루지 못했다. 본고에서 論議해온 單獨的 場面의 體系는 相關的 場面의 그것과 함께 본고의 姉妹篇(高永根 1974b : §4.1)에 體系化되어 있다.

---

[48] 이정민(1973)의 시도는 이 方面 연구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ABSTRACT

Sentence-Types and Mood System in Modern Korean

Yong-Kun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sentence-types and to systematize mood categories on the basis of my previous analysis of sentence-final endings in Modern Korean.

2. It might be said that these are seven sentence-types from structural and semantic viewpoint. They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lasses depending on whether the speaker wants to exert an influence on the will of the hearer or not. In the former class we must include not only ordinary Declarative and Exclamative, but also Promissive. In the second class there are four types: Interrogative, Imperative, Propositive, and Preventive. The aim of these types is to influence the will of the hearer: Interrogative demands calling for a piece of information and the others call for action.

3. The above-mentioned sentence-types could be also divided into Volitive and Non-volitive mood according to whether they contain an element of will or not: the speaker's psychological attitude could be represented through these sentence-types. The Non-volitive mood is expressed by the sentence-prefinal endings preceding Declarative, Interrogative and Exclamative markers. On the contrary, Volitive mood is represented by Promissive, Imperative, Propositive and Preventive markers themselves. The Volitive mood markers with which I am now concerned should be necessarily affixed to the action verbs: the subjects of the Volitive mood sentence are always in the first and the second person. However, Non-volitive mood markers do not show any restrictions in combining with verbs, their subjects can be in any person.

4. The above-mentioned sentence-types and mood-system ar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ones in indirect speech. In this case we find four sentence-types: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and Propositive. The Exclamative, Promissive and Preventive which were identified in direct speech do not appear in direct speech. The same phenomenon can also be proved in the mood system. Among Indicative, Retrospective, Presumptive, Apodictive and Assertive which I identified in direct speech only three classes: Indicative, Retrospective and Presumptive appear in this speech.

5. The sentence-final endings which I have called so far sentence-types show many changes even in Modern Korean. The Declarative endings of descriptive verbs and copula in familiar speech level are being gradually unified with the ones of action verbs. In colloquial speech nearly all sentence-final endings are being simplified to yo-dropped endings and yo-added endings, although they are not simplified in indirect speech.

참 고 문 헌

康允浩. 1969. 開化期의 敎科用圖書文章에 나타난 終止法語尾에 대하여. 韓國文化硏究論叢 14. 서울：梨花女子大學校.

高永根. 1965. 現代國語의 敍法體系에 대한 硏究〈先語末語尾의 것을 중심으로〉國語硏究 15. 서울：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硏究會.

_____. 1967. 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대한 構造的 硏究〈特히 排列의 차례를 중심으로〉語學硏究 3.1. 서울：서울大學校 語學硏究所.

_____. 1971. 國語敍實法에 나타나는「話式」의 範疇에 대하여〈이른바 回想의 "-더-"를 중심으로〉.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서울：一朝閣.

_____. 1973. 書評：姜馥樹, 國語文法史硏究. 語文學 28. 大邱：韓國語文學會.

_____. 1974a.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 硏究. 語學硏究 10.1. 서울：서울大學校 語學硏究所.

_____. 1974b.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硏究. 語學硏究 10.2. 서울：서울大學校 語學硏究所.

김두봉. 1916. 조선말본. 京城：新文舘.

金敏洙. 1960. 國語文法論硏究. 서울：通文舘.

김윤경. 1957. 고등나라말본. 서울：동아출판사.

金熙祥. 1911. 朝鮮語典. 京城：普及書舘.

南基心. 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東方學志 12. 서울：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_____. 1973. 國語補完形文法硏究. 大邱：啓明大學韓國學硏究所.

朴勝彬. 1931. 朝鮮語學講義要旨. 京城：朝鮮語學硏究會.

裵亮瑞. 1973. 現代韓國語스타일. 국어국문학 62—63. 서울：국어국문학회.

安秉禧. 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 6. 서울：建國大學校.

李承旭. 1963. 疑問添辭攷—特히 그 對立意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76. 서울：국어국문학회.

이정민(Chungmin Lee). 1973. The Korean modality in the speech act. The University of Michigan Papers in Linguistics. 1.2.

이희승. 1950. 초급국어문법. 서울：박문출판사.

이홍배(Hong-Bae Lee).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Seoul: Pan Korean Corporation

_____. 1971. The category of mood in Korean transformational grammar. Language Research 7.2. Seoul: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張奭鎭(Suk-Jin Chang). 1973.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Pragmatic aspects of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Language Research 9.2(Supplement). Seoul: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정렬모. 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서울：한글문화사.

정인승. 1956. 표준고등말본. 서울：신구문화사.

_____. 1960. 한글강화. 서울 : 신구문화사.
周時經. 1910. 國語文法. 京城 : 博文書館.
최현배. 1934. 중등조선말본. 京城 : 東光堂書店.
_____. 1961(初版 1937). 우리말본. 서울 : 正音社
洪起文. 1947. 朝鮮文法研究. 서울 : 서울신문사.
Dupont, René et Joseph Millot. 1965. Grammaire Coréenne. Séoul: 카톨릭出版社.
Gardiner, Sir Alan. 1963(1st ed. 1932). The Theory of Speech and Langu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Jespersen. Otto. 1965(1st ed.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New York:The Norton Library.
Martin, S.E. 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Ooe, Takao.(大江孝男). 1958. On the indicative endings in Modern Korean. 言語研究 34. 東京 : 日本言語學會.
Ramstedt, G.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Mémoire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LXXXII.
Quirk, Randolph et al. 1972.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and London: Seminar Press.
Underwood, H.G. 1915 (1st ed. 1890). An Introduction to the Spoken Korean Language. 京城 : 朝鮮耶蘇教書會.
Vandesande, Anthony V.& Francis Y.T. Park. 1968a(Part Ⅰ), 1968b(Part Ⅱ). Myongdo's Korean '68. Seoul: Myongdo Institute.
大塚高信. 1959. 新英文法事典. 東京 : 三星堂.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
(접수 : 1976.4.1)